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편안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하노라
신명기 24장 2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6월 26일 (토) 제 1831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미 진보주의 끝? 건국논쟁 '1619 프로젝트'

미 언론,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미 건국논쟁 진행과정과 폐해 소개

과연 미국 진보주의의 끝은 어디인가? 흑인 노예가 처음 도착한 1619년을 미국의 건국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1년 넘게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메이플라워 400주년이 퇴색된 것은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었다. 1620년의 그 위대한 항해와 깊은 의미를 지우고 미국의 근본정신을 지우려는 '1619프로젝트'가 미국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지배하고 있었다. 또한 "조직적 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저항"이라고 포장된 BLM운동은, 사실 미국의 전통과 근간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수정주의 문화전쟁의 일환이었다. 1619프로젝트를 시작한 뉴욕타임스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주요언론과 '빅테크'(Big Tech, SNS와 검색엔진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주도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가 미국을 지원하며 이 자해소동에 동참했다. 심지어 유튜브의 트위터 공식계정은 작년 추수감사절에 "Thanksgiving" 대신 "Unthanksgiving Day"를 기념하기도 했다.

1619프로젝트란 2019년 8월 20일 뉴욕타임스의 니콜 해나-존스(Nikole Hannah-Jones) 기자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밟았다고 주장하는 1619년의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쓴 비평 논설이 뉴욕타임스의 거대한 연속 논평시리즈물로 확대된 것이다.



미국 건국을 흑인 노예 도착으로 삼으려는 1619 프로젝트가 미국을 흔들고 있다. 사진은 당시 노예선에 서 내린 노예들과 노예상인들

1619프로젝트의 핵심 골자는 이렇다. 미국의 "진정한 건국"은 1776년 독립선언이나 1789년 헌법의 비준, 혹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의 플리머스 선착이 아니라 1619년 흑인 노예들의 첫 아메리카 도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해나-존스 기자는 그래서 "미국의 DNA에 흑인 인종차별이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미국은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건국됐다고 단언한다. 미국이 자유공화정이 아닌 "노예정(slavocracy)"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미국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인식을 조장한다.

대표들도 노예제를 언젠가는 철폐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노예문제에 대한 그들의 논쟁은 대부분 노예제 폐지의 시기와 방법에 있었지만 그 당위성에 있지 않았다. 링컨이 노예해방을 이뤄냈을 때도 그는 미국의 독립과 건국정신에서 그 명분을 찾았다. 당시 링컨과 함께 노예제 폐지를 외쳤던 대표적인 탈출 노예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도 미국의 헌법을 "영광스러운 자유의 문헌"이라고 칭송했다. 또 '지하철도'(당시 미국의 교회들이 구축한 흑인노예들의 탈출루트 네트워크)를 이용해 70여 명의 노예들을 구출하고 '모세'라는 별명을 얻었던 탈출 노예 해리엇 튜먼(Harriet Tubman)도 제퍼슨의 독립선

언서를 종종 인용했다. 흥미로운 것은 1619프로젝트에 이런 위대한 흑인들과 그들의 업적들은 거의 생략되거나 아주 짧게 다룰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흑인들을 무기력한 피자배적 희생양으로만 묘사해 피해의식(victim mentality)에 사로잡히게 하며 감정적 분노만 자극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구호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논거는 오히려 뿌리 깊게 인종차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9프로젝트의 칼럼들은 현재 최소 3,500개 학교 교실의 커리큘럼에서 채택되고 주류사회와 의식에 확산되면서 그 왜곡된 역사관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급기야 1619프로젝트는 작년 5월 풀리처상(논평부문)

을 거머쥐기도 했다. 1619프로젝트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그 직후 폭발한 'Black Lives Matter(BLM)' 폭동시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시위참여자들은 실제로 모든 국부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굳게 인식하고 있었고, 심지어 노예해방을 이뤄낸 링컨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 국부들의 동상들과 기념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그들은 도심 주요건물과 조형물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1619"를 칠했다. 클레어몬트맥케나 대학의 찰스 케슬러(Charles Kessler) 교수는 한 논평에서 BLM 폭동이 사실상 "1619 폭동"이라고 말한다. 워싱턴포스트의 사라 엘리슨(Sarah Ellison) 기자도 "2020년을 집어 삼킨 건" 코로나가 아니라 "1619프로젝트"라고 썼다. 1619프로젝트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한 것이 1619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이 아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그보다 최소 수 십년 전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 탐험가들에 의해 지금의 플로리다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래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3면으로 계속)



제40회 남침례회 한인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라'

CKSBCA 제40차 정기총회, 총회장 김경도 목사

미남침례회(SBC) 한인교회들의 모임인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CKSBCA) 제 40차 정기총회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테네시 주 내슈빌에 있는 굿레스빌제일침례교회에서 열렸다. 한편 15일과 16일에는 미남침례회 정기총회가 25년 만에 최대인원인 17,000명이 사전 등록된 가운데 내슈빌 뮤직시티센터에서 열렸다.

'대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16일 오후 7시 개회예배를 시작한 CKSBCA 정기총회는 집회와 세미나, 선교집회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 회의에서 임원 선출과 사업을 결정했다. 특히 총회 둘째 날에는 미남침례회 정기총회에 참가했다. 총회기간 열린 집회의 주강사로 김기동 목사(고구마글로벌미션 대표, 소중교회), 자니 헌터 박사(NAMB 부총재), 제이슨 알렌 총장(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임용우 목사(워싱턴성광교회) 등이 참여해 강의했다. 또 15일은 국내선교의 밤, 16일은 해외선교의 밤이 진행됐다. 둘째 날 진행된 선택 세미나는 김경찬 목사(44년 목회 핵심), 광

정민 목사(IT기술, 송관섭 목사(주일학교), 김재이 목사(정신질환), 배병균과 설훈 선교사(IMB 선교), 김재현 목사와 김로리 사모(난민선교), 이조이 자매(여성교회 사역) 등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드교회), 제1 부회장으로 이영보 목사(내슈빌연합침례교회) 등이 당선됐다. 총무는 신임 투표 결과 강승수 목사가 연임됐으며, 서기는 문동순 목사(버지니아한미침례교회)가 선출됐다. CKSBCA는 700여 한인교회 소속된 미주 최대의 한인총회이며, 팬데믹 기간 중에 151교회에 156,000불을 지원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용렬 목사 3면



푸른초장
서삼정 목사 4면



잊혀진 그리스도의
승전 교리 회복한다!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번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ighthouse.com / cjb@lighthouse.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자이언스(임플란트)
- 구강외과 불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브릿지교회 창립30주년 Festival

“ 브릿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교회와 이웃사회를 연결하고, 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

김재호 목사 (브릿지교회)

- 찬양 간증집회** JULY 4
지명현 목사 (소리엘 / 하나님아시여, 아픔의 축복 등 다수)
7월 4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찬양 간증집회** JULY 11
이은수 목사 (나는 내 아들이라, 아베스의 기도 등 다수)
7월 11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JULY 23/24
최홍주 목사 (PCIGA 총회장, 예브리데이교회)
7월 23일(금) - 7월 24일(토) 오후 7:30 (2일간)
- 비전(Vision) 집회** JULY 25
김승년 목사 (베른 루지 비전교회, 1대 담임목사)
7월 25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2부 예배시 장로 &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 JULY 25
2021년 7월 25일 (주일) 오후 4:00

THE BRIDGE CHURCH 브릿지교회 T.800.484.0992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발행인 칼럼

죽어서 말한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어제는 6.25전쟁 71주년의 날이었다. 6.25전쟁은 수백만의 사상자(死傷者)와 천만의 이산가족(離散家族)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 상처가 짙고 짙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歷史)이다. 6.25전쟁은 비극적 전쟁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 북(北)에 남아 신앙생활의 박해를 받고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南)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도 있음을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역사를 잊으면 제대로 된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

잊지 말자. 6.25전쟁.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된다. 특별히 납집을 감행한 사악한 공산당 무리에 죽음으로 맞선 군인들을 잊을 수 없다. 작금(昨今)의 상황은 적잖이 걱정스럽다. 6.25전쟁이 있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누가 그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묻어두려거나 왜곡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허튼 침묵(沈默)과 수작(誑辭)을 벌이는 자들은 죽은 군인들조차 가만히 있는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죽어서도 바르게 말한다. 6.25전쟁 피난길에 한 군인의 죽음을 목격한 모운속 시인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詩)를 썼다.

“산 옆의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뱀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옆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고/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가 밀려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숨지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 일러 다오.”

국군은 죽어서 말했다. 꽃다운 나이에 아낌없이 죽은 그 죽음의 이유를. 그렇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을 젊은이들, 어여쁜 소녀의 손을 잡고 싶었을 청년들이 죽음에 자신을 내놓았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행복과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가진 것이 있음을 죽음으로 말하였다. 사랑하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죽었노라고 스물다섯의 젊은 군인은 말한다. 그런 젊은 군인들이 죽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선명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다. 그들의 처절한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기들이 죽어 이 땅에 꽃피우고자 기대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데 세세히 들려준다. “그대들이여, 의미심장한 이야기꾼들이여, 그대들이 죽음으로 말하는 것들을 가슴으로 잘 듣고 있노라. 감사하다, 자랑스러운 그대들이여.”

33세의 청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 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우리는 죽어서 무엇을 말할까. 죽음의 이유도 모른 채 죽는다면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우리를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다가 이 미국 땅으로 옮겨 심으시어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하시다가 언젠가 죽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 언젠가 있을 우리의 죽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죽는 것이냐고 나의 후대(後代)가 묻는다면 나의 죽음을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믿음’은 믿는 행위가 아니라 믿는 ‘무엇’

TGC, 신학적 혼란시대에 유다서 3장이 말한 ‘믿음의 도’ 3가지 각도에서 제시

우리는 신학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 리고니어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y)가 최근 시행한 '신학상황(State of Theology in 2020)'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고백하는 이들 중에서도 30%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46%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으며, 22%는 성 정체성은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세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는 특히나 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강한 상대주의

와 개인주의에 몰려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신앙을 저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기독교를 선호한다.

저스틴 딜리헤이(Justin Dillehay, Grace Baptist Church in Hartsville, Tennessee) 목사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형제가 우리에게 전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유다서 3절을 묵상하기에 좋은 환경임을 의미한다고 제시한다. 그는 이 구절을 3가지 각도에서 본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신학적 혼란의 시대에서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풀어준다(Contending for the Faith in a Confused Culture).

1. 명확한 경계와 내용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유일한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믿음’은 믿는 행위가 아니라 믿는 ‘무엇’을 가리킨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1세기에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사도들이 기대한 일련의 정리된 가르침이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유다는 AD 65년의 기독교인에게 ‘믿음’을 위해 싸우라

인이라면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다(고전15:3; 갈1장).

유다의 명령은 또한 성경이 비록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지만 그 안에는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가르침이 들어있음을 시사한다. 그것이 바로

은 근본적인 도덕적 진리와 교리적 진리를 모두 포함했다.

도덕적 진리 첫째, 믿음에는 죄와 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덕적 진리가 포함된다. 실제로 유다는 이렇게 경고했다. “가만히 들어온

런 교회를 향해 지금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경고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7절).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의 사도적 믿음은 “죄 사람을 믿는다”(고전6:9-11, 골1:13-14).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죄에 대한 올바른 이



“믿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단 한 순간도 좋은 사람이었던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믿음 자체를 수정하는 것

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유다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었다. 현대의 일부 회의론자와 달리 유다는 ‘여러 기독교’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 바울처럼 그도 오직 ‘하나의 믿음’(엡4:5)만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에 반하여 가르친 사람들은 단지 대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갈1:6-9).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모든 것에 다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롬14장), 그럼에도 기독교

건강한 신조나 고백이 의미하는 바다.

교회 웹사이트에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섹션이 없는 교회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무엇을 믿는지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은 유다에게 빈 깡통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 이 사실은 바로 다음 질문을 부른다.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2. 도덕적 그리고 교리적 진리로 가득한 믿음

유다와 초대교회에게 믿음

사람 믿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4절).

육정에 빠져 살면서 그런 삶을 위한 신학적 합리화를 만드는 것은 믿음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기독교 사랑의 이름으로 무지개 깃발(동성애 옹호를 의미)을 날리고 있는 일부 교회가 존재하는 오늘날 우리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

해도 따라서 가장 중요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계명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다(마5:19). 그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용서받고 해방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거짓선생들이 부정한 믿음의 내용이다. 유다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말이다.

(3면으로 계속)

필렌 교회 및 부지 판매

- 주정부 정식인가 면세
- 1.25Acre 부지
- General Commercial
- 80석 성전

프로윈 부동산 Jay Song (213)389-012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경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담임목사 청빙 공고

대흥장로교회는 미국 Los Angeles지역에 위치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1977년 창립한 이후 43년 동안 분열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꾸준히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님이 은퇴하셨기에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회경력(부목사 포함): 5년 이상 (신청일 기준)
- 2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 자기소개서 (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성장배경/사모소개와 가족사진)
- 추천인 3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1년 7월 22일
제출처: application.dkpc@gmail.com

기타 서류 및 문의는 e-mail로만 접수합니다 (Word, PDF)

대흥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대흥 장로교회 (Dae Hue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www.dkpc.org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저의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에서는 제 9대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 1) 정규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 2) 이민교회에서 5년이상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경력 있으신 분
-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 1) 본인 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 및 간증서
-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회분
-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5) 목사 안수 증명서
- 6) 마지막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5) 지원 관련 문의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미진보주의 끝? ...

(1면에서 계속)
“흑인들의 도착”을 “미국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다분히 인종차별적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1619년을 꼭 집어서 “미국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다음해인 1620년의 메이플라워호 도착, 즉 필그림들의 미국 정착이 미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교도 정신, 즉 기독교 개혁주의 사상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지우려는 시도다.
1619 프로젝트 관련 기사들은 나오자마자 즉시 반발에 부딪혔다. 브라운 대학의 고든 우드 교수, 존스홉킨스 대학의 제임스 M. 맥퍼슨 교수 등 저명한 역사학자 다섯 명이 해당기사에 대해 ‘역사적 이해보다 이데올로기를 우선한다’라며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제이크 실버스타인 편집장은 1619 프로젝트 관련 기사들을 옹호하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로써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교육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폴리처위키보고센터(폴리처상과는 무관)’가 1619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시카고와 뉴저지 뉴어크, 뉴욕의 버펄로, 워싱턴DC의 학군들이 1619 프로젝트를 교과로 채택해 지난해 말까지 3500여 개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됐다. 공립학교가 아닌 콩코드 아카데미 같은 일련의 명문 사립고등학교들도 1619 프로젝트를 가르쳤다. 대표적인 출판업체 ‘랜덤하우스’도 1619 프로젝트를 어린이 및 청소년용으로 그림책과 에세이로 묶어 출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열기가 뜨겁던 지난해

9월 “좌익 폭도들이 우리 건국 영웅들의 동상과 기념비를 허물고 폭력시위를 벌인 것은 좌파 교육에 세뇌됐기 때문”이라며 그해 5월 조지 플로이드 살해로 가속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의 공범으로 1619 프로젝트를 지목했다.
트럼프는 1619 프로젝트 학교수업을 “아동학대의 형태”라고까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련 교과를 채택한 공립학교들에 대해 연방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에 트럼프는 ‘미국 전통’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보수주의 운동가, 정치인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역사자문기구인 1776 위원회를 설립했다. 1619 프로젝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 날 이 논쟁을 일단락 했다. 그는 취임식이 끝난 직후 애국 교육을 표방한 트럼프의 ‘1776 위원

회’ 및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 흔적 신속하게 지우기’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는 일이다.
미국 건국년에 대한 담론은 1619년과 1776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1619 프로젝트의 대안으로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 압박을 피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에 착륙했던 1620년을 건국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필그림(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건국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문화적 전통의 차원이다.
모든 문제는 역사교육에서 비롯된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1619 프로젝트같이 저널리즘 차원의 수정주의 역사 운동이 아니라 건국의 선진들이 분명하게 선포했던 미국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점이다.

시론
도전과 응전
인류 문명의 발달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사책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가 있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두 단어가 나온다.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 그리고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다. 인간 사회가 새롭게 발전을 할 때 반드시 다가오는 도전이 있다. 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다. 이것이 응전이다. 어둠을 돌파하고 나올 때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문제는 누가 이 어둠의 시대와 험겨운 환경을 뚫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토인비는 기존 생각과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일반 역사가들은 문명이 발전하려면 안락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의 배경을 말할 때 공통점이 좋은 환경 여건이라고 가르쳐왔다.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 황하의 황하 문명이다. 모두 강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했고 농경시대에 물 공급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좋은 환경이 문명 발전의 근거라는 말이다.
토인비는 이러한 기존 세계관에 혁명적 수정을 요구한다. 인류 문명의 발전 주도한 이유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토인비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있다. 나일강은 범람해서 농사를 짓기에는 좋지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다. 나일강이 넘치는 것이 인간 세상에 하나의 도전이다. 인류는 이에 응전하기 위해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원했고 이런 필요성이 천문학과 기하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결국 인류 문명 발전을 앞당겼다. 중국 문명의 첫 출기인 황하도 마찬가지다. 나도 중국 란주에 몇 차례 방문했을 때 황하의 강줄기를 자주 보았다. 황하는 그 이름처럼 사시사철 흙탕물이 흐르는 강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다. 어둠을 뚫고 돌파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 역사는 발전했다. 토인비는 이런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 부른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의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마다 시대의 등불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 성경의 12제자들은 유대교를 뚫고 나왔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하는 로마의 칼날을 뚫고 세상의 한복판에 섰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지중해의 영적 지도가 바뀌었다. 중세의 어둠을 뚫고 진리를 선포한 마르틴 루터 한 사람으로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났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진 존 칼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은 찬란한 꽃을 피웠다. 진젠돌프라는 한 사람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 빛으로 물들인 선교역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오늘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팬데믹이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온 세상은 현재 영적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이 무너지는 세상, 예수 밖의 다른 길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원리를 따라 남녀가 아닌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보다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 앞에서 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적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다.
기독교 종주국이라는 영국은 교회를 다니는 비율보다 이슬람 사원을 다니는 비율이 더 높다. 개신교 아버지 존 칼빈의 숨결이 남아있는 프랑스는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 미만이다. 무슬림은 벌써 10%를 넘었다. 마르틴 루터의 정신을 간직한 독일 교회는 사람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아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할 뿐이다.
이 시대의 신앙인과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적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 교회를 강타한 핍박과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 진보를 이루어 오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뚫고 영적 돌파를 이루어낼 사람이다. 누가 역사의 도전 앞에 영적으로 응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런 영적인 창조적 소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preachchrist@kcpc.org



류영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대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라’

(1면에서 계속)
40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입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경도 목사(플라우마운드교회 TX) △제1부총회장: 이행보 목사(내수

빌 연합침례교회 TN) △제2부총회장: 김영하 목사(살롬선교침례교회 CA) △총무: 강승수 목사 △서기: 문동수 목사(버지니아 한미침례교회 VA) △회계: 허중수 목사(한마음침례교회 TX).

내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가족이다. 내 목표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BC는 총회를 통해 10여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슈가 됐던 인종에 대한 결의를 통해 “역사적이고 성서적으로 충실한 남침례교의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에 대해 동의하고, 논란이 됐던 비판적 인종이론을 거부했다. 또 낙태에 대해서도 “예외나 타협 없이 낙태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LGBTQ에 대해서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평등법을 반대하고 “미국 역사상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

나이며, 종교적 자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성애를 죄라고 다시 선언하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두 성별을 창조하셨다고 강조했다. 또 창세기 2장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sexuality)”을 “이성애(heterosexuality)”라는 단어로 대체해 그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교회 내 성폭력 목회자들의 비리를 숨기고 옹호했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성경은 목회자들이 흠이 없어야한다고 명령했다”며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목사직에서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선언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SBC 정기총회, 신입총회장에 에드 리튼

25년 만에 최대인원이 참가한 미남침례회(SBC) 2021년 정기총회는 시작 전부터 인종, 성범죄, 여성 이슈 등 여러 화제 가운데 진행됐다.
SBC는 약 47,000개 교회가 소속돼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다. 총회장에는 4

명이 출마해 52%의 지지로 에드 리튼(Ed Litton) 목사를 선출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온건한 후보가 556표 차이로 극보수 후보를 이겼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당선 후 에드 리튼 신입 총회장은 이런 분위기를 잘 타나

(보통 성 혁명을 주장하는 이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초기 신조에 포함된 교리적 진리에 대한 믿음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협에 빠뜨리는 헛된 꿈이다.

교리적 진리
어떻게 사는가는 관계없이 단순히 교리적 가르침만 인정하면 되는 것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한 부류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부류는 기독교를 무엇을 믿는가와 관계없이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종교교만 보고 있다. 이 말은 결국 삼위일체를 믿지 않

고도 얼마든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무신론자와 힌두교인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계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17:3).
(4면으로 계속)

‘믿음’은 믿는 행위가 아니라...

(2면에서 계속)
내가 너무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덧붙여야겠다. 우리는 성적 부도덕을 허용함으로써 믿음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를

돌보지 않음으로써도 믿음을 부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5:8).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바로 그 믿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heavens stars moon hisfinger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총독 갈리오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는 나라를 번영케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는 역사적으로 가뭇게 콩 나듯 드물었다. 그래서 세상은 흔히하고 살아가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왕조 5백년동안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준 미달이었고, 뛰어난 왕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그렇다면 뛰어난 외국 운동선수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귀화시키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일찍이 로마제국에서도 그랬다. 로마의 가장 뛰어난 오현제 중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스페인 출신이었고, 로마를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 융성하게 만들었던 트라야누스 황제도 역시 히스파니아 출생이었다.

그들이 원로원에서 연설할 때는 사투리 억양이었기에 원로원의 의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다지만 그게 무슨 대수이겠는가! 황제는 정치면 잘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구 갈리오(Gallius AD51-53)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아가야는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그리스 남쪽 지역이다. 그런데 갈리오는 히스파니아 남쪽 코르도바 출신이었다. 그의 형은 네로 황제의 고문이었던 스토의 철학자 세네카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그가 재임하는 중에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야 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2차전도 여행 중에 1년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도전을 받아야 했다. 저들은 어느 날 무력으로 바울을

붙잡아 총독의 법정으로 데려가 고발했다.

무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은 항상 자신들의 힘을 내세운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은근히 협박했다. 그런 협박에 굴하여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두려움 때문에 저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식이 도전이 고린도에서도 반복되었다. 그러나 아가야 총독은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굴하지 않고 도전했다.

바울이 무슨 부정한 잘못을 범했다면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저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행 18:14-16). 놀라운 일이다. 아주 중요한 판단이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첫 시도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교를 말할하는 공산주의가 있고, 종교와 야합하여 독재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고, 서로 견제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건강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견제하는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칼뱅은 국가와 교회는 서로 대등한 주체로 건강한 견제의 대상이라고 했다. 영국의 계몽 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종교관용에 관한 서한(1689)에서 국가는 종교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미국의 독립 선언문에 반영되었고, 영국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유대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으나 두려워하면서도 지금은 가라, 내가 기회가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고 바울을 돌려보냈다. 그

리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까하여 자주 불려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정작 그 귀한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다. 탐욕에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리오는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만났는데도 복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만난 놀라운 기회였는데 말이다. 그는 몸이 약해 이집트로 요양을 가기도 했었으나 형 세네카가 네로의 암살 모의에 연루 되어 자살형을 받게 되자, 그 역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그 놀라운 복음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우리 역시 지금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chiesadirioma@daum.net

푸/른/초/장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인간은 본성적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 받으라는 인사말을 많이 한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한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연의 심성이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그러하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자녀들이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본문 시편 67편은 7절로 된 짧은 시편에 3번이나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셨다.

본 시편은 민수기 6장에 근거해서 복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있다. 민수기 6:24-26 “여호와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1.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구하라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셀라)”
△은혜로 복 주시기를 구하라.

옛날 버전(version)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로 되어있다. 긍휼과 은혜는 한 쌍과 같다. 긍휼은 별과 심판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하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긍휼이 동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는 죄인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매달려 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취 주시기를 구하라.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이 건강이나 물질 등 외적인 복이라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하셨다.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을 주셨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하였다고 하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야곱은 그냥 복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복을 힘써 구했다.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항상 기회를 노리다가 사냥에서 돌아와 시장한 에서에게 팔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샀다. 또 복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야곱은 그런 후에도 압박 강에 홀로 남아 천사를 붙잡고 내

복을 구하는 동기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시어 그들도 구원의 은택을 받기를 원해서 복을 구하라.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더 나아가 그들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복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본 시편을 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한다.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복을 구하라.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서도 똑 같은 말씀을 하신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제한이 없다.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풍성한 추수를 뜻한다. 땅이 소산을 내는 복을 이미 주셨으나 그것은 복의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한 것은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제한이 없다. 우리는 더 큰 복을 기대하며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요가 한이 없는 것을 믿을진대 더 큰 복을 기대하며 구하라.

△복의 통로가 되라.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지금 받은 복을 흘러가게 하라. 더 큰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받은 복을 흘러가게 하라. 지금 받은 복을 흘러가게 하면 더 많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물질만이 아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 지난 주간 어떤 성도가 “아침마다 주시는 목사님 메시지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게로 날리고 있습니다” 했다. 이것이 받은 복을 흘러가게 하는 일이다.

큰 은혜를 받도록 기다리지 말고 매일 받는 작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 점점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큰 물질의 복을 받도록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받은 복을 흘러가게 하라. 점점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물질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면서 더 큰 복을 구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구하라.
ok.kfpcchurch@gmail.com

복 주시기를 구하라

시편 67편 1-7절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 맞추었다. 조금도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다. “무슨 짓을 하다 이렇게 거지 꼴이 되어서 왔나” “내 재산은 다 써버렸나” 묻지도 않았다.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이것이 긍휼이다. 더 나아가 이웃을 정하고 잔치를 벌였다.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손가락에 반지까지 끼워 주었다. 반지는 아들이요 상속자라는 뜻이다. 이것이 은혜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얼마나 복을 구할 용기를 주는 말씀인가. 자신이 복을 구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있지 우리 자신의 자격에 있는 것

에게 비취주시는 것은 더 깊은 내면적인 복이요 영적인 복으로 불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상적으로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 깊은 곳까지 은혜로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만족해진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며 웃으시는 것을 보기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 복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나에게 비취 달라고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구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고

계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 되었어도 천사를 놓지 않고 복을 달라고 구했다. 야곱은 마침내 천사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

야곱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그래도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복을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2. 선한 목적을 위해 복 주시기를 구하라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 복을 구하라.

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본문에는 주를 찬송하다, 기쁘게 노래하다 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온다. 내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결과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우리는 이 꿈을 꾸면서 복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기 위해 복을 구하라. 4절 “은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므로 하나님의 심판 주되심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받은 복을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민에게 선포되기를 바라며 복을

‘믿음’은 믿는 행위가 아니라...

(3면에서 계속)
기독교인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특정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믿음은 특정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증한다. 우주 창조와 예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이다(히11:3; 고전15장). 믿음은 또한 “예수가 주님이시다”, “여호와와는 한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은 무가치한 우상이다”(롬10:9; 고전12:3; 신6:4; 고전8:6; 시96:5)와 같은 진술이 진리임을 증거

한다. 또한 믿음은 악인의 심판과 육체의 부활과 같은 특정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확증한다(유다 6절, 14절; 고전15장; 딤후2:18).

행동이 없는 믿음(belief)은 죽은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도 치명적이다. 믿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단 한 순간도 좋은 사람이었던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이 ‘선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전1:21)는 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도덕주의에 불과하다. 그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3. 믿음은 시대정신(Zeitgeist)을 이긴다

정통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어왔다. “현대인이려면 기독교의 _____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거기에 맞게 변하거나 아니면 사라져야 해.”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다. 트레빈 왁스(Trevin Wax)는 100년에 살았던 ‘현대인’이 믿지 못했던 것이 대개는 동성녀 탄생이나 부활과 같은 교리적 진리였음을 지적한다. 1920년에 살았던 현대인은 성경 속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지만 기적 이

야기는 도통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거의 그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 우리 문화가 특히 기독교를 보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성에 관한 성경의 도덕적 가르침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독교는 진화하거나 사라져야한다는 말을 우리는 듣고 있다. 그러나 20세기를 되돌아보면 정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화했던 교회는 다 죽었다. 목숨을 잃을 각오로 교리를 지키 교회들은 지금도 살아남았다.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믿음은 시대주의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화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측면을 이리저리 바꾸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걸림돌이 놓여 있다. 감각적인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단지 선행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을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두 가지를 다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더 나은 것을 제시한다.

우리는 실제로 신학적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믿음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도 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트랜스젠더 시술 받은 성전환자의 절망적 후회를 들어본다! (상)

“탈트랜스젠더”(Ex-Transgender) 남녀들의 생생한 증언들

“위험할 정도로 쉽게 만들어 놓은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구입절차...그러나 그렇게 성전환을(Sex-Change 성별 바꾸는 시술) 했어도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다.”

여러 명의 탈성전환 또는 탈트랜스젠더(detransition) 남녀들이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구입과정 등이 쉬운 반면에, 그렇게 쉽게 시행되는 성전환 수술이나 치료가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미친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하여 Deep Blue State의 상원, 하원의원들은 집중적으로 LG-BTQ+트랜스젠더 확장지지 정책에 초점을 둔 법안들을 수없이 제정하고 있으며 주류 미디어도 이런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친동성애, 친트랜스젠더적인 내용들로 짜집기 언론만 내놓고 있는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인터뷰가 CBS의 60Min 방송을 통해 보도되어 미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CBS 60min 방송자체와 그 방송을 진행하는 Lesley Stahl가 좌파성향이 짙은 주류방송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정치적인 통제 밖으로 나온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Lesley Stahl은 여러 명의 의학 전문가들 그리고 성전환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공포를 경험했다고 한, 전 그리고 현재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녀에 의하면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이들 4명을 포



함해 성전환에 대해 후회스러웠다고 말한 30명 이상의 탈 전환자를 인터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이번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는 탈성전환자들이 눈에 보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탈성전환자들(성전환을 했다가 다시 본래 성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아래에 몇가지 나눕니다.

1.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의 협박을 당할까봐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은 한 젊은 여성은 수술과 호르몬을 통해 성전환을 했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1년 안에 했는데, “정말 내가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야말로 너무 미친 짓이었다. 한 순간의 감정에 의한 결정은 막대한 후회를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2. Grace Lidinsky-Smith(그레이스)라는 여성은 자신이 20대 초반에 경험한 성별 불만족감(gender dysphoria)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그녀가 정보를 통해 알게 된 트랜스젠더들은 정말 행복해보였고, 성전환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에 차 있었다고 하며, 무엇보다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도 ‘저 사람들의 모습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내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다면 더 이상 수줍은 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도 정말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온라인을 통해 성별 치료를 찾

아 몇 번의 상담을 가졌는데, 그 치료사는 그레이스의 몇 마디만 듣더니, “당신은 진정으로 성전환을 원하는 게 확실한 거 같다”라고 에그레이스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장본인인 그레이스는 정작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말하길, “그 치료사는 내가 경험했던 ‘성별 불쾌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별로 다루지 않았다. 관심도 없어 보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어한다고 나의 감정을 확인시켜주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는 말하길 “성전환 과정의 시작은 쉬웠다. 내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나니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받을 수 있었다. 치료사의 질문은 딱 한번 건강적으로 ‘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복용하려고 하느냐’고 내게 물었고, 여자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적합치 않다고 하니까 ‘알았다’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난 남성 호르몬을 받을 수 있었다. 대단히 쉽게 만들어진 과정이었다.”

60min의 인터뷰 진행자인 Stahl은 그레이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충격 받은 것은 바로 그레이스가 남성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투입하기 시작하지 겨우 4달 후 ‘top surgery’

라고 불리는 유방절제수술(mastectomy)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난 당시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했는데 그때의 느낌은 마치 내 몸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 갑자기 사라졌고 뭔가 허겁지겁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정말 놀라서 두렵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스는 계속 받아야 하는 남성호르몬 주입을 중단했고, 다시 진료소로 가서 의사에게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상황을 경험한 자신의 전환과정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3. Garret(게렛)이라는 탈성전환을 한 또 다른 젊은이는 두 번의 병원예약을 가진 후 ‘성전환 출몰’약 처방에 대한 승인편지를 받았는데, “성전환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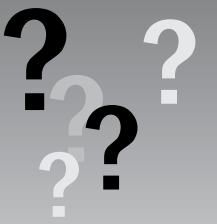
게렛에 의하면 겨우 2번의 방문을 통해, 자신은 성전환을 할 수 있는 호르몬 복용부터 시작하여 고환을 제거하기까지 겨우 3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성은 나중에 가슴 확대수술까지 받았다고 CBS는 보도했습니다.

다음에는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는 Tvnex.org에 가시면 계속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박해를 끝내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주었지만 콘스탄틴 이후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e the Great, 288-337)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로마황제들에 의한 박해가 막을 내리면서 교회의 타락은 시작되었고 로마천주교회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교회의 타락도 콘스탄틴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오덕교 교수의 장로교회사(p. 53-57)를 참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권주의의 등장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대상이었지만 황제의 개종과 함께 교회지도자들은 황실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황제의 식사 초대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자 목사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목회자 사이에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이 점차로 심화되었습니다. 교세에 의해 목회자의 권위가 평가되면서 큰 도시교회의 주교가 지방교회의 주교보다 중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의 주교가 중소도시의 교회들을 지도 감독하면서 교구 주교(bishop of diocese)가 생겨났습니다. 이때부터 한 국가의 수도에 위치한 주교는 대주교(Metropolitan bishop 혹은 archbishop)라고 불려졌고 지방교구의 주교위에 권세를 행했습니다. 또한

교회 타락: 교권주의 등장, 형식화, 계급화

대주교 사이에 권력투쟁이 시작되면서 총대주교(Patriarch)가 생겨났습니다. 로마의 감독(주교)은 유럽의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을 드러내어 세속권에 대한 교회권의 우위성을 강조하며 세속 군주처럼 행동하였습니다. 395년에는 주피터(Jupiter)신의 대제사장 칭호인 대사제(Ponifex Maximus)라는 말을 자신의 칭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로마교회의 감독(교황)을 대사제(Pontiff)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로마감독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이방종교의 사제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둘째, 예배의 형식화와 기도문 등장입니다. 교회정치가 인위적인 형태로 변질되자 인간의 고안을 중시하고 전통을 지지하는 예배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단순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보다 형식과 외적치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기도문이 등장하여 기도가 주문같이 임해지게 되었고 기도를 고행의 수단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교부 바실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의 형식화로 보고 사용을 경계하였습니다.

셋째, 평신도와 사제의 구분과 계급화입니다. 4세기 말에 사제들이 노동자들이 입던 망토를 고수하여 사제복이 되었는데 사제복의 등장으로 복장을 통하여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죄를 받게 된다는 사제주의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제단, 희생, 사제, 대사제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교회는 계급화가 되었습니다. 평신도 간에도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집사 직분이 집사와 부제(subdeacon)로 나누어졌습니다. 공예배와 성례 때 사제를 보좌하여 돕는 기능이 중시되면서 집사를 부제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마리아 숭배입니다. 이교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교적인 의식을 도입하면서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숭배가 교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여신숭배는 마리아 숭배로 이어졌고 동정녀 마리아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마리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로 간주했습니다.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조직을 통한 선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 하라는 선교 사역은 뜨거운 열 정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전진하기가 힘들고 교회 공동체의 응원이 필요하 듯이 선교 사역도 함께하는 공

동체와 그 사역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단체의 소속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들 씩 짝지어 파송하셨고 그것을 미래의 사역에 모델로 던져주 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서로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아셨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선교 단체가 된 것입니다.

1792년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이후에 선교사역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어나간 근거도 선교단체의 시스템을 갖춘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바울처럼 이동하며 전도 사역하는 팀이 있었고 반면에 한 곳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여 성도를 양육하는 모델도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든 선교팀이든 다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하나님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선순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좋은 선교 후보생이 저에게 와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보일 때

제가 했던 권면이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늦추고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팀으로 관리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진행된 사람들은 몇 십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선교지로 직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이곳저곳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몇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언어 훈련이나 문화 적응 과정도 건너 뛰고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급하게 현지에 쏟아부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 그런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몇 년 안 되어 건강에도 문제를 보였으며 중립군 선교사(?)가 지난 수년간 반복해서 보여줬던 패턴입니

다.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사가 단체에 소속이 안 되면 현지에서 정착할 때 도움을 줄 선배도 없고,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담할 사람도 없고, 현지 지도자와 연결점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투명성이나 보고체계도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 단체의 도움도 전무합니다.

아니, 선교사도 죄성으로 연합함을 가졌기에 재정의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후원금의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서 중요한 공적 책임을 건너뛰고 빠른 결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본국을 다니면서 모금하여 눈에 보이는 건물과 프로젝트 사역에 집착하다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는 조직을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만 건강하게 그 사역을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하고 오랜 후에도 현지인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현지인에게 재산권을 뺏기기 일쑤고 혹시 거대한 사역을 일구었다면 사역을 이어갈 현지 제자도, 동료나 후배 선교사도 없어서 민망하게 사역을 문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때론 모금해서 세워진 사역을 돈으로 거래하여 팔아버리고 자신의 노후계획을 세우는 양심을 버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열정도 필요하지만 조직과 규정, 질서도 필요하며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에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독교인 결혼생활만족도 높아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의 결혼생활이 더 행복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나연구소가 최근 미국 성인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59%)가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경우 73%는 매우 만족한다고, 약 20%는 다소 만족한다고 답했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65%)이 여성(52%)보다 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65%)와 1950년대에서 1965년 이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61%)가, 1965년에서 1980년대 사이에 태어난 X세대(47%)보다 나이가 들면서 결혼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 가족연구소(IFS)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의 수가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고, 25세에서 50세 사이의 응답자 중 3분의 1 이상(35%)이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의 경우 같은 연령대 미국인 중 9%만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SBC, 릭워렌 목사 제명 고심 중

미남침례회(SBC) 내부 위원회는 지난달 교단의 방침과 달리 여성 목사 3명을 안수한 새들백교회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교단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내슈빌에서 열린 SBC 연차총회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새들백교회의 회원 자격 여부를 묻는 현의안이 교단 자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위원회는 SBC 소속 교회가 교단의 신앙과 실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안은 루이지애나주 트라우트에 있는 펠로우십침례교회(Fellowship Baptist Church)의 샷드 티브스(Shad Tibbs) 목사가 현의했다. 이 현의안은 성에 대한 성경 말씀에 관해, 특히 여성이 교회의 특정한 직책과 설교를 맡을 수 있는지 여부에 교단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에드 리튼(Ed Litton) SBC 신임 총회장은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새들백교회는 앞서 공식 페이스북에 사상 첫 여성 목사 안수 소식을 게시, 여성 목사 안수가 SBC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믿는 침례교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여성 사역 지지자들에게서는 찬사를 받았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The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은 "목회 사역은 성경에 따른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한정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견해에 찬성하는 이들은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등주의자들은 "해당 성경 구절은 특정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말씀으로, 영구적이거나 보편적인 제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헬라어로 된 구절이 보다 정확하게는 "난 '지금'은" 여성의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연차총회는 이러한 이유로 새들백교회를 아직 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및 주에서는 이미 관계를 정리한 곳도 있다고 CP는 전했다.

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집행위원회 추천이 이뤄진다. 실행위원회가 교회가 이상 교단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결정은 공개된다. 만약 교회가 그 결정에 항소할 경우, 교단 연차총회 대신에서 이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월 초, 새들백교회는 리즈 퍼피, 신시아 페티, 케이티 에드워즈를 목사로 안수했다. 이후 당시 SBC 총회장이었던 J. D. 그리어 목사는 "새들백교회의 사역 및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존중했지만, 여성 목사 안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옹호정책' 반대정적 美 교사 복직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의 트랜스젠더 옹호 정책을 반발하다 정적 당했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복직했다. 미국 기독교 법률가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리즈버그초등학교 교사인 태너 크로스가 지난 달 25일 학군·학교 정책과 관련된 공개 논쟁시간에 '교사가 부모의 통보나 동의 없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아이가 선호하는 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정적 당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크로스는 버지니아주 라운던 카운티에서 15년간 체육을 가르쳤다. 학교 이사회는 그의 발인 후 48시간 안에 교사직을 정지시켰다. 크로스는 ADF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나는 선생님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면서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없다. 성별이 바뀐다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이며 아이에 대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200여명의 학부모는 법정 밖에서 크로스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버지니아주 법원은 "크로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페이스북에 크로스 관련 기사를 올리고 "큰 승리"라고 언급했다.

국제월드비전 '난민 백신 불평등' 보고서 발표

저소득 국가에 몰려 있는 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의 확보 단계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국제월드비전(총재 앤드루 몰리)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있어 난민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백신의 공평한 접근성을 촉구했다.



국제월드비전은 16일 '높은 위험, 낮은 우선 순위: 난민과 국내실향민(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에게 코로나19 백신이 필수적인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파괴적 영향력과 백신 및 보건 서비스 접근의 제약으로 인한 난민들의 어려움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요르단 터키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8개국의 난민 및 국내실향민 339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국제월드비전은 "난민과 국내실향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높은 위험에 놓였지만,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득 국가가 전체 백신의 84%를 보유한 반면, 난민 4000만명 이상을 수용한 저소득 국가들은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3%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914명 중 단 한 명만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응답자의 68%는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난민 수용국의 40%는 난민에 대한 백신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취약계층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2차 영향력에도 주목했다. 응답자의 73%는 지난 1년간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40%는 실직을 경험하고 77%는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생계 수단과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의 조혼을 강행한 가정도 있었다. 우간다는 응답자의 50%, 콩고민주공화국 33%, 요르단 16%가 어린 자녀를 결혼시켰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이전보다 취약 환경에 놓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비율도 증가했다. 우간다에서는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 발생률이 38%, 콩고민주공화국은 아동 폭력 발생률이 15%나 증가했다. 특히 난민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인해 폭력 방임 학대 등에 더욱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은 내년까지 전 세계에 10억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기부를 약속했다. 국제월드비전은 해당 국가들이 약속을 지키고 특히 난민 등 취약계층에 백신 공급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앤드루 몰리 총재는 "오늘날 전 세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 더 많은 난민이 있으며 그중 절반은 어린이"라면서 "세계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모퉁이돌선교회 '남북한 병행 성경' 발간

북한 선교단체인 모퉁이돌선교회(대표 이사 목사)는 '남북한 병행 성경'(문공서원)을 발간했다.



이 성경은 남북한 다른 언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이라고 선교회 측은 밝혔다.

이사 대표는 간행사에서 "북한 성도에게 필

요한 성경이지만 남한 성도들이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고 북한을 이해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퉁이돌선교회는 북한 성도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99년 헬라어 원문 번역을 시작으로 2007년 북한어 신약 성경을 완성 및 인쇄했다.

구역 성경도 번역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한글 번역을 마친 뒤, 다시 북한어로 번역해 2015년 10월 북한어 신·구약 합본 3000권을 인쇄해 배달했다. 2019년엔 북한어 성경 2판을 냈다.

이 대표는 "하나님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혼자 또는 가족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북한어 성경을 출간해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준비하도록 강권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러하여 북한 사람은 북한어로, 남한 사람은 남한어로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고, 2021년 6월 25일에 한글과 북한어로 된 성경을 나란히 비교하며 볼 수 있는 '남북한 병행성경'을 발간했다"고 발간 경위를 밝혔다.

1983년 설립된 모퉁이돌선교회는 그동안 4만여개의 라디오와 2000여개의 MP3, 수십만권의 성경을 북한과 탈북자, 중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북한말 성경 발간 작업과 함께 만화 성경 보내기, 현지 교회 세우기, 쌀 보내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 '델타변이' 에 마스크 다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일상'로의 복귀'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확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매체는 20일 이스라엘 보건부가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접종 입국자 자가 격리 등을 포함한 방역 조치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전 국민의 55%에 해당하는 514만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지난 2월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왔던 이스라엘은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마지막 단계로 해제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방역 조치를 되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 북부 빈야나마의 중학교에선 4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스라엘 중부 모딘에서도 6학년 학생 15명이 감염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학생 모두 델타 변이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비필수 여행 제한 권고를 어기고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주리주, 캔자스주 등 시골 지역에서 델타 변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주리, 캔자스, 아이오와 등 중서부 지역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 비중이 23.5%라고 밝혔다. 미국 전체 평균인 약 10%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53%,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45%지만 미주리주의 경우 각각 44%, 38%에 불과하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4. 이응목(1875-1965)

이응목(李膺穆)은 1875년 12월 21일 또는 그해 1월 26일에 평안남도 속천군 평리 방북삼리에서 아버지 이성심과 어머니 서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21세 되던 1896년에 장로교인이 되었고, 25세가 되던 1900년 10월 22일에 고향에서 김신환과 결혼했다.

하와이 노동이주자로 지원한 이응목(Eung Mok Ye)은 부인 김신환과 함께 코리아 선박을 타고 1905년 4월 15일에 하와이 오키아에 도착하였고, 이곳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였다. 이듬해 1906년 2월 21일에 그는 부인과 하와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함께 만추리아 선박을 이용하여 샌프란시스코(상항)로 이주했고, 그해 공립협회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와 그의 가족이 상항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을 것이다.

이응목은 상항에서 와이오밍 락스프링스로 이동하여 석탄 채굴 광부로 일하였다. 이응목이 1907년 8월 16일자 공립신보에 게재된 '대한인 연합교보'를 위하여 의연한 제사의 방명'에서 한인 예배당 없이 신앙을 지킨 기독교인으로서의 자태를 잊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 외에도 동석기, 고금자, 고상훈, 박호빈, 이휘관, 신영환, 이병권, 유홍서의 이름이 있는데 위의 명단을 볼 때 락스프링스에 예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응목이나 그 후 감리교 목사가 된 동석기가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해 6월에 공립협회에 헌의한 바는 '교육은 위국대요'(教育爲國大要)였는데 이응목이 앞서고 황국일, 이동령, 고금자와 함께 그달 18일에 공립신보에 기고한 아래의 '위학생헌의서'(爲學生獻議書)에서 그의 애국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우라스푸링에 유하는 이응목 등은 삼가 본 총회에 의향을 올리옵나니 청컨대 각 지방회에 공포하시와 성사가 되게 하시기 바라옵나이다. 대저 좋은 줄을 알고 행치 아니하거나 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을 취함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오. 우리가 모이면 나라 걱정이요, 말하면 공부하여야 되겠다고 하며 부화뇌동

명이 합심하면 3, 40명을 교육할 터이니 우리의 말한 바와 같이 매 삭 1, 2달러 자비까지도 공부 잘하는 것과 같다 하노라. 여러분께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열성과 공부하여야 되겠다는 성심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힘써 행하여 본국 정부에서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일본과 청국서 보내는 관비 학생보다 더욱 열심히 나게 하소서. 이 돈들은 공립협회에 총회 학부 법무로서 총괄케 하고 학생은 분회로서 공천 채용케 하고 규칙은 학부부가 규칙대로 시행하여 실사가 되게 하시기를 이에 헌의하오니 조량하십시오."

이응목의 나라 사랑은 1907년 4월에 황국일과 함께 락스프링스 지방회의 대의원과 학부로 활동하면서 야학을 운영하였고, 4명이 근심하게 출석하였음에서 알 수 있다. 그해 7월에는 이응목이 지방회 대리 회장이었다.

슈퍼리아 한인감리교회 예배인도자

그 후 이응목은 가족과 함께 락스프링스에서 같은 주 슈퍼리아로 이동했다. 상항에서 발행되던 1909년 3월호의 '대도'에 따르면 슈퍼리아에 있는 동포 중에 지금 새로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가 일곱 명이 되었고, 매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대도'의 편집인 양주삼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욱 풍성히 주어 믿음이 견고하게 되며, 또 다른 데 계신 형

이응목은 부인과 함께 하와이와 와이오밍에서 낳은 두 자녀를 데리고 1910년에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삭도)로 이주했다. 그는 1913년에 대한인 국민회 삭도지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15년에도 삭도지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한인에게 신앙을 얻었다.

1915년 6월 26일에 회집한 캘리포니아 북방에 있는 한인 남감리교회 지방회는 지방전도사를 선정했다. 이응목을 양주삼과 함께 삭도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다. 이날 임정구는 오렐랜드 한인감리교회로 파견되었고, 황사선은 상항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이면서도 삭도, 스타튼, 오렐랜드 및 마운틴 뷰의 있던 한인감리교회의 순회목사로 임명되었다. 이번이 없는 한 1910년 11월에 대한인 국민회 삭도 지방회장으로 발된 4가 1517호에서 삭도한인감리교회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곳은 개밭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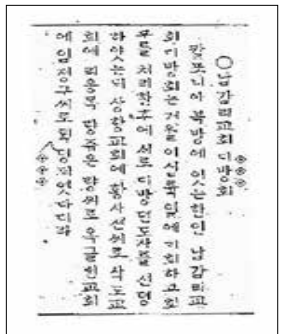
그런데 전도사로 임명된 다음 달인 7월에 이응목의 부인 김신환이 치료하던 신병이 완치되지 않아 상항 약카디아 여관으로 가서 치료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해 9월에는 양금성이 신병으로 삭도 천주교회 병원에서 치료하였는데 병원비가 없어 신한민보에 병원비 후원을 이응목이 나서서 직접 광고하였다.

그달에 삭도 뿌라더릭 합수농장에

나재원, 권영태, 김성일, 이공렬, 박근보, 지용빈, 이도석, 정영서, 양주은, 홍 언, 안경심, 조동현, 김병수, 장유문, 이화춘, 박준하, 송승근, 김형필, 석화섭, 전홍문, 김응규, 신달윤, 김계선, 이우형, 윤경호, 박 언, 박명오, 박재운, 김성도, 홍종연, 안연선, 김성수, 김홍균, 김수권. 1915년의 보고에 따르면 삭도 한인감리교회 교인은 총 28명이었고, 출석 교인은 평균 15명이었다.

이응목이 삭도 지방회 법무원으로 선출된 1916년에 다시 순회목사 황사용의 지도하에 삭도 전도사가 된 것 같다. 그해 삭도 한인감리교회 교인은 총 35명이었고, 평균출석은 16명이었다.

그동안 삭도에서 한인여관을 경영하던 이응목은 1917년 5월에 여관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곳에 거주하던 김홍균에 따르면 삭도는 콜루사와 윌로우스 버농장과 삭도 벨리 와 스타튼 중심에 위치하여 동포의 내왕이 많이 여관 하나가 없을 수



신한민보 (1915년 7월 8일)

없다며 누구든지 여관을 경영하면 넉넉히 성공할 것이라며 이응목의 여관을 선전했다. 그해 12월에 이응목이 삭도지방회 부회장이 되었다는 광고가 게재된 신한민보에 삭도에 거주하던 김계선의 '사람 찾는 광고'가 났다. "김형만과 김형식 형제분은 미주에 온 지 15년인데 근 3년은 본집에 통기가 없어서 해 씨의 처자가 소식을 알아 달라 하며 김봉오 씨의 모친도 그 아들의 편부를 탐문하여 달라고 본인에게 부탁하옵기 자에 광고하오니 누구든지 이상 3씨의 거주를 아시거든 본인에게 기별하여주소"라는 안타까운 기사에 전도사였던 이응목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것이다. 김영훈이 담임목사로 부임하던 1917년까지 이응목이 양주삼과 함께 2년간 전도사로 사역하였던 것 같다.

그 후 이응목은 상항으로 이주하여 세탁소와 상점을 운영하면서 독립의 연금을 많이 출원했다. 1930년과 1931년에는 이응목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하와이에서 나성으로 이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인 1954년 11월에 이응목은 에드워드 목 리(Edward Mok Lee)로 변신했다. 그는 1965년 4월 8일 향년 90세에 중가주 프레스노에서 소천했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 8월에 그의 독립운동을 쟁하여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damien.sohn@gmail.com

1915년 6월 삭도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임명받아 삭도 지방회 법무원, 삭도 지방회 부회장으로 활동

리는 놔두면 코 재주도 없으니 다른 사람 공부하는 것이 내게 상관이 없다고 마음이 편하오리까. 우리 공립협회에서 학생을 권학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하였으니 공부할 기초만 세우고 완전한 실효를 기약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재정이 없어서 그러함이다. 그런즉 불가불 실효의 방책을 강구치 아니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몇 사람의 생각은 매 삭 1, 2달러 못되는 재정을 가지고 온전히 공부 잘 할 것을 깨달았을 것이나 이것은 백 사람이 다 학생이라. 위명하다 한 사람이 성취하면 갖지 못하며 한 사람이 돈도 벌고 공부도 하려면 둘 다 성취 못할지라. 돈만 버는 자는 돈만 벌고 공부하는 자는 공부만 하는 것이 둘다 완전할 터이니 우리 몇 사람이 생각건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학생 몇 사람씩을 공부시키는 것이 우리나라를 회복할 기계를 준비함 이요. 본 회에 대지를 이루는 방책이라 하노이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네 사람은 매 삭에 오십 전씩 내기로 작정하고 여러 동지자에게 앙고하옵나니 가령 백 사람이 매 삭에 50전씩이면 50달러라. 매 삭 50달러를 가졌으면 학생 3, 4명을 공부시킬 것이요. 전

제들도 그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의 응답이 그해 10월 '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해 10월에 5명이 늘어 12명이 되었고,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 앞으로 나아왔다.'

슈퍼리아 한인감리교회는 주일마다 육신의 일은 전폐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성경공부를 하였고,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성경강론을 하였다. 삼일날 곧 수요일에는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회로 모였다. 위와 같이 세 번의 모임을 통해 그들은 신덕을 배양하기에 힘썼다. 성경을 공부하며 주일을 근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이곳 탄광 회사 주인과 다른 백인들이 한인들을 사랑하며 공경할뿐더러 특별히 선대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구주의 은혜를 감사하였다. '대도'를 구독하는 자 중에 그 대금을 지급한 김신우, 김창령 그리고 이응목이 있었는데 이응목이 예배를 인도했을 것이고, 김신우와 김창령은 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삭도한인감리교회 지방 전도사

서 국치기념식이 있었다. 서울 정동 증평전 앞에서 한일합방조약이 맺어진 1910년 8월 29일을 국치일로 지정하고 국치기념식을 통해 치욕을 벗고 독립을 추구하는 날로 지켰다. 삭도 한인감리교회 교인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다음의 순서 담당자의 대부분이 교회 직원이었을 것으로 안다. 창가를 부르면서 개회하고, 지방회 회장이자 삭도 전도사인 이응목이 취지 설명을 한 후 권운복 여사가 기도하였고, 구연성과 김용성이 군가를 부른 후 임초가 '망국의 현상'이라는 제하의 연설을 하였으며, 고종명이 감동가를 불렀고, 여학생 이보배가 초례식을 담당하였으며, 목사였던 황사용이 기도하였고, 라동현과 김유성과 조동현과 김규돈과 조종익이 '소년 남자가'를 부른 후 방정석에서 나와 누군가 연설하고 국치기념식을 마쳤다. 이후 다과회가 있었다.

신한민보에 1915년 10월 28일에 게재된 삭도지방회 경비를 보조한 명단 중 많은 사람이 교인이었을 것이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았다: 김윤택, 심점목, 김규돈, 강순태, 박승구, 장석열, 나재성, 송창근, 조종익, 김국현, 김재건, 박성태, 김찬일, 유득춘, 김지선,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9: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e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공부: 오후 09:00 새벽 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1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6: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 (718)662-6611 142-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원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사역예: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 개혁신교회 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토) 주일 2부 예배: 오전 1:50(토) 주일 3부 예배: 오후 1:50(토) 청년예배: 오후 9:40(토)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예배: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a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토) 금요공부기도: 매일 새벽, 셋째, 다섯째, 일요일 오전 7:30 금요찬양 기도회: 매월 둘째(토)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김대우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배로운교회)

“변화 vs 거룩”

언젠가 건강식 요리를 하는 부패 식당을 갔었습니다. 사과를 삶아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은 메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사과로 보이지 않았습니...

미의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세월과 함께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삶의 태도도 달라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 가면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초점이 단지 습관만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정도에 맞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을 거룩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의 좋지 못한 습관들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룩한 상태의 결과로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룩한 상태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오랜 세월은 우리의 겉모습을 변화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변화와 거룩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말미암은 거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변화된 습관들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유행은 우리의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는 그런 요소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제자들을 위한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이 거룩하여지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

씀을 통하지 않는 변화는 결코 거룩하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달라진 변화는 쉽게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뀌어진 습관만 보고 만족하려는 것을 깊이 주의 하여야 합니다. 만족의 목표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므로 육적인 자아가 죽어져 나감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에 두십시오. 한순간도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를 불러일으키는 ‘악의 요소’들입니다. 죄를 불러일으키는 악의 요소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곧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

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의 요소들을 소멸할 때 우리의 내면은 그분의 거룩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조련사에 의해 잘 조련된 한 마리 야생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야생마는 조절되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조련사가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그 지시를 위해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진 거룩은 부드러운 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력 있게 역동적이며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목상하여야 하고 인식하여야 할 대상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낙태문제, 카톨릭과 바이든의 한 판 겨루기

CNN, 교리상 엄금 낙태 허용 바이든에 대한 성체성사 거부 조울 보도

낙태를 놓고 미국 가톨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허용을 찬성하는 소신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교리상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미국 가톨릭과 매우 강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가톨릭주교협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성체성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강경한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US Catholic bishops advance communion document, setting up potential rebuke of Biden).



인의 모습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가톨릭 신앙과는 별개

장을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이를 개신교나 이슬람교, 유대교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여성에게 그들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낙태는 당사자들과 의사 사이에 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가톨릭교회에서 성체성사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이다. 가톨릭의 7대 성사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전하는 의미에서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로 엄청난 사건이다. CNN은 미국가톨릭주교협회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68표 대 반대 55표, 기권 6표로 가톨릭 교회 내에서 성체성

한 결정이 내려지면 교황청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보고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낙태에 찬성하는 다른 가톨릭 정치인들에 대

운 사제들의 발언 등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정치와 종교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종교인 가톨릭이나 개신

11월 보고서 제출 예정... 결정에 교황청 승인 필요할 수도 바이든은 자신의 가톨릭 신앙과 별개로 낙태권 옹호 밝혀

미사 중에 예수의 몸으로 축성된 제병을 받아먹는 영성체는 가톨릭 신자에게 축복이자 신성한 의무로 통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가톨릭 학교를 나온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따라서 미국가톨릭주교협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성체성사를 거부한다면 그 자

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성체성사 보고서는 수정과 승인을 위해 오는 11월쯤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한 비판이 담길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CNN은 전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연설에서도 성서, 성가, 학교 시절 배

교 교리를 따른다. 게다가 유권자들에게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점에서 종교와 다른 견해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

로 정치적으로는 낙태권을 옹호하는 소신을 지켜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기간에 부통령 토론에서 낙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믿음과 0.2%의 가능성, 돌파하는 믿음, 간절한 매달림,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회원사: 남미복음신문, 미주기독교신문, 미주기독교방송, 미주복음방송, 미주크리스천신문, 아멘넷, 크리스찬 투데이, 크리스찬 리뷰, 크리스찬 미디어, 크리스찬 위클리, 크리스찬 타임스, CHTV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기독교서적, 두란노서원, 말씀사.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www.koramdeo.com,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duranno.us,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lifebook.co.kr, 말씀사 714-530-2211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센트럴교회 지역주민 초청 행사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역 주민 초청 행사를 갖는다. 7월 4일(주일) 오후 6시부터 음식, 게임, 불꽃놀이를 하며 8시부터 팝 콘서트를 진행한다. ▲문의: (516)387-9940

퀸즈장로교회 2021 여름성경학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21 여름성경학교가 8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treasured" 라는 주제로 열린다. 6월 27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 ▲문의: 9718)886-4040

목양장로교회 서머스쿨

2021년 목양장로교회(담임 허신국 목사) 서머스쿨이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열린다. 대상은 K-5학년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점심 제공. 회비는 800달러(현재 700달러). ▲문의: (646)287-4449(한), 709-1101(영)

뉴저지 동산교회 설립 36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뉴저지 동산교회(담임 윤병호 목사) 설립 36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가 6월 27일(주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장로장립 2인(김원태, 김홍욱) △집사장립 김문태 △권사취임 5인(장영숙, 정은지, 정가니, 김명혜, 김병희) △명예 안수집사 조문식 △명예권사취임 최하자 등 9명이 임직한다. ▲문의: (201)229-1561

한인 5명 정회원 목사안수

UMC 222차 뉴욕연회, 준회원 4명, 본처 3명 안수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 미연합감리교회(UMC) 222차 뉴욕연회에서 한인 목사들이 대거 안수를 받았다.

연회 후 6월 13일 주일 오후 4시 화잇플레이에 위치한 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에서 토마스 빅터톤 감독의 집례로 안수식이 진행됐다. 팬데믹으로 축소된 안수식에서는 7명이 정회원(장로목사)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그중 5명이 한인목사로 뉴욕연회 내 한인의 위상을 보여줬다. 연회 내 감리사도 6명 중 2명이 한인이다.

정회원 안수를 받은 한인 5명 중 2명은 아버지도 목사로 대를 이어 목회자가 됐다. 명단은 타이종 목회를 하고 있는 양승권(Seung Kwon Yang, Manhattan Chinese UMC), 김제인(Jane Kim, Massapequa Community UMC), 이재삼(Samuel Lee, Westhampton UMC), 우호정(Claire Hojung Wu, Baldwin First UMC), 은한빈(Jacob Eun, Wallingford UMC) 목사 등이다.

양승권 목사는 역시 뉴욕연회 소속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잇비교회 담임)의 아들이며 은한빈 목사는 은희곤 목사(전 뉴욕참사랑교회 담임, 현재 한국 거주)의 아들이다.

정회원(장로목사)은 연회에서 행정 참여 등 모든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완전한 선거권은 물론 감독, 감리사 등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 정회원 이전 단계인 준회원목사(provisional member)로 임명 받은 8명중 4명(최대호, 한현실, 홍성진, 이선용)이 한인이다. 또 본처목사(local pastor) 임명 9명중 한인목사는 3명(한은성, 이새벽, 유혜민)이다. 본처목사는 목사지만 오직 파송 받은 교회에서만 성례전과 세례식을 인도하고 집례 할 수 있다.

이번 222차 뉴욕연회는 "On Jordan's Stormy Banks"라는 주제로 화상으로 열렸으며 교단의 운명을 결정하는 내년 UMC 총회를 앞두고 별 이슈 없이 조용한 가운데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아시아 인종혐오범죄 어떻게 대처?

뉴욕교협, 시민참여센터와 이보교 주관 세미나

뉴욕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주최한 '아시아 인종혐오범죄 매뉴얼' 설명 세미나가 17일 오후 7시 줌화상으로 개최됐다.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가 주관한 이 세미나는 조원태 목사 사회로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기도 후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가 환영사를 했다.

김성국 목사는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인종혐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미국 땅에 펼쳐지기를" 기원했다.

주 강사 최영수 변호사는 '대응 매뉴얼'(원하는 교회에 배부)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뉴스에 중국인에 대한 폭력사태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외모가 유사한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먼저 인종혐오 범죄를 당했을 경우 1)차분히 응답할 것 2) 무시하고 자리를 피할 것 3)관련 당국, 경찰에 신고할 것 4)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 5)지역구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대책을 요구할 것 등을 소개했다.

또 인종혐오 범죄를 목격했을 경우 1)목소리를 낼 것 2)피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여 줄 것 등을 소개하고 각가지 대

응방법에 대해 실 예를 들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증오범죄 대처법 중 '3차 개입 금지'를 강조하며 이는 인종증오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상해를 위태로워 보여도 물리적 폭력적 방법으로 가해자를 제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웃돕기 5Ds 원칙(Distract, Delegate, Document, Delay, Direct)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911 신고 시 "Korean please"라고 하면 한국어 협조가 이뤄지며 2세대 이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Speak up, Speak out"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다른 문화권에 대한 한인사회의 편견에 대한 반성의 시간도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다민족 목회를 이루는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의 사례를 들어 교회가 다 타민족과 연대하는 사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던 후 허연행 목사 기도로 마쳤다.

인종차별 신고 핫라인은 (646)450-8603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나 (718)309-6980 이민자보호교회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뉴저지 지역은 지난 3일 줌으로 열린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부회장후보 이진아 목사, 회장으로

미주여성목회자협 제13차 정기총회

미주 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이미선 목사)가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이진아 목사(사진)를 선출했다.

먼저 연례행사가 된 여성신학생 후원식이 열려 손이진, 이선경, 최혜영, 하사론 등 4명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양승인 목사 사회로 성찬식이 먼저 진행됐다. 이어 대표기도 서기 하정민 목사, 말씀 회장 이민선 목사("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눅5:1-11), 봉헌기도 임한나 목사, 광고 총무 이진아 목사, 축도 증경회장 김금옥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회무는 회장 이미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난 12회기는 팬데믹 가운데 및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2차례의 임시행위위원회 회의와 4번의 중보기도회를 열었다. 또 원로 김남수 목사를 초청해 "옛 복음과 새 시대 목회"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와 여성목회자의 날 행사, 그리고 이번에는 캐나다 목회자들과 북미주연합 여성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또 회원수첨도 발간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신영 목사의 보고를 시작으로 임원선출이 진행됐다. 회장후보인 양승인 목사의 견해와 소신에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결국 자진 사퇴하고 부회장후보인 이진아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했다. 감사는 백금숙 목사와 이주실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 회장 이진아 목사는 2014년 순복음북미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현재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이만호 목사) 동사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후 회칙 개정이 이뤄져 회장 임후보자는 1명일 경우는 투표 없이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또 졸업증서와 피선 동의서를 등록서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14일부터는 제13차 북미주연합 여성목회자 컨퍼런스가 줌 화상으로 열렸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이 주최한 아시아 인종혐오범죄 매뉴얼 온라인 세미나에서 김성국 목사가 시작기도 하고 있다.



뉴욕교협이 뉴욕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글로 표현

뉴욕교협 공동주최 제1회 특별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뉴욕교협이 뉴욕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특별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6월 20일 오후 3시 뉴욕교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신앙간증 분야: 우수상 정주현 집사(아름다운교회, "위대하신 하나님"), 가작 전나사 사모(에벤에셀선교교회, "코로나 병을 낫게 해 주신 참 좋은 하나님") △수필 부문: 우수상 홍성희("코로나는 무서워"), 가작 환원희("코로나19 팬데믹,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고인선("코로나 팬데믹") △시 부문: 우수상 안미림 권사, 가작 강필구님 △시조 부문: 우수상 김병권님.

시상식은 권캐더린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교협회장 문석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노래와 시를 가까이하는 사람의 마음은 천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자신이 한국에서 등단했으며, 이번 공모전에 출품도 고민했지만 공정성 문제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디지털 세계라 하

도 인생이 묻어나는 글들은 없 어지고 많은 말이 나오는 시대다.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목회를 마무리하면 입을 다물고 몸을 움직이고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종종한다"고 말했다.

여주영 뉴욕한국일보 고문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경제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이 생각하며, 글로서 아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생각하며 교협에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고 가야 한다.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고 그런 것을 통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사회를 희망으로 끌고 나가는 의미로 시작했다"고 공모전 취지를 밝혔다.

문석호 교협회장은 마무리 멘트를 통해 "설교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글은 항상 고독과 절망감을 먹고 나온다. 그런 삶이 없는 글은 가벼운 글이 된다"며 "김억 시인은 시편 1천번만 읽으면 저절로 시인이 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시상식은 뉴욕교협 증경회장 김용걸 신부 기도로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후원금 답지

맨해튼과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The Campus Mission Church가 6월 10일 한인노숙인 쉼터구입을 위해 후원금 4천 달러를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전달했다. 뉴욕나눔의집 후원문의는 전화 (718)683-8884, nannoomhouse9191@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패밀리터치 제 15회 후원 모금 골프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 제 15회 후원 모금 골프대회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제 15회 후원 모금 골프대회가 6월 16일 버크셔 벨리 골프코스에서 열렸다.

다양한 참가자들이 패밀리터치의 미션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을 세우므로 온 세대가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후원하고자 참가했다. Hitron이 홀인원 스폰서를, Baik Family Foundation, 뉴밀레니엄 बैंक, Bethel Industry 등 뜻을 같이한 사업체들과 개인들이 후원했다.

패밀리터치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부부, 그리고 시니어

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예방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안젤로스 미션 앙상블(AME)과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여름 밤 온라인 콘서트를 시작으로 Grace & Mercy Foundation 후원으로 진행되는 Just Show Up 온라인 북클럽, 어린이 줌 여름캠프, 그리고 청소년 줌 리더십 세미나가 예정돼있다.

프로그램, 후원문의는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RCA뉴욕한인교회 회장 첫 2세 목사 선출

어린양개혁장로교회 EM 그레이스임 목사

RCA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에 2세 목사인 그레이스임(임지윤·사진) 목사가 선출됐다.

지난 6월 3일 어린양개혁장로교회(담임 류승례 목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세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선임된 임 목사는 어린양개혁장로교회 EM 목회자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로 그동안 RCA 한인모임 내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1세 목회자들을 섬겨왔다.

어린양개혁장로교회 담임 류승례 목사와 함께 개혁해 동역해오고 있다.

임 목사는 이날 당선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저를 인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1년 동안 성실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임 부회장에는 박희열 목사(뉴욕빌립보교회)가 선출됐다.

(유원정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

“찬반논란 분열, 하나님 영광가려”

OC장로협 성평등법 규탄성명 발표

오렌지 카운티(OC) 장로협의회(회장 황치훈 장로)가 ‘성평등(LGBTQ)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장로협의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성적체성과 성평등법 찬반 논란으로 초래된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또한 성도들에게 전이되어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에 간극이 심화되고 신앙 공동체마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개 교회 지도자들의 침묵과 외면, 성경의 가르침에 분명히 어긋나는 동성애 문제를 언급 못하는 목회자들과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지도자들의 태도에 분노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OC장로협은 성평등법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장로협의회는 “지난 6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심각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부단한 기도와 노력을 물론 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들을 전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알리며 말씀에 진리를 위해 싸우는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LGBTQ문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리고 법적 문제가 발생시 담당기관에 알려 도

움을 청하며 일련의 UMC(연합감리교회) 사태를 바라보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중성스러운 목회자를 탄압하는 교단의 횡포와 하기가 감독의 독선에 투쟁하는 가주태평양연회 한인교회협의회와 전국평신도연합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원천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이들과 함께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명은 또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현재 미 연방 상원에 상정되어 있는 성평등법(H.R.5)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적극 반대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국 내 모든 기독교 단체, 목회자,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모든 기관들과 힘을 합쳐 한목소리로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OC장로협의회는 지난 6월 2일 미주복음방송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이를 신문지상을 통해 공고하기로 했다. 황치훈 회장은 “지난 3월 26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평등법 저지운동본부에서 주관한 설명회에 참가한 후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평등법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그동안 저지운동에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장로협의회는 팬데믹 기간에도 줌을 이용한 화상 모임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매월 협의회 소식 및 회원 동정을 알리고 회원들의 신앙고백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OC장로협의회에는 25개 교회에서 약 56명의 장로 회원들이 등록돼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세계선교교회 제 8대 담임 김창섭 목사 취임예배가 27일(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열린다. 세계선교교회는 1973년에 설립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세상속의 교회' 표어로 영혼구원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문의: (213)388-1927

UMC 한목협 KMP 웨비나

UMC 한목협(회장 정희수 감독,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이 주최하는 KMP 웨비나가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회의진행법' 로버트의 의사규칙 배우기'란 주제로 오는 7월 12일(월), 7월 19일(월) 오전 10시(서부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강사는 김찬희 클레어몬트 명예교수.

▲문의: (404)460-7937

미주복음방송 Classical Education Seminar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에서 오는 6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Classical Education Seminar를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Semi Park(OC Classical Academy Head Master)이며 50명 참석자 한정으로 미리 예약을 받는다.

▲문의: (714)484-1190

나성세계로교회 이전

나성세계로교회(임지석 목사)가 1530 W. Olympic Bl. (Union 한블럭 동쪽)으로 새롭게 이전했다. 팬데믹 기간에도 대면예배를 계속해온 본 교회는 주일예배를 오전 11시이며 기타 예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213)219-9229

사역자 청빙

나성성결교회(담임 구영모 목사)는 부교역자(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한다. 청빙내용은 풀타임 부교역자 1명과 하프타임 혹은 파트타임 부교역자 2명(교회학교/찬양사역)이며 지원자격은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자(기독교성결교회 출신 우대), 45세 미만.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포함) 및 가족사진, 자기소개서이며 제출마감은 6월 26일까지다.

▲문의: davidkoo@hanmail.net

2021년 베델장학생 신청자 모집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1년 베델 장학생 신청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7월 4일까지다.

▲문의: scholarship@bkc.org(김교식 집사)

2021 TKC 한여름밤의 축제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2021 TKC 한여름밤의 축제를 26일(토) 오후 6시30분 본 교회 야외주차장에서 'Together Again, We Can'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이날 축제는 오버플로우 워십팀, 갓스미치, 찬양사역자 이정영, 김하나, 로이스 김, 감사한인교회 소망찬양팀이 출연한다.

▲문의: (714)521-0991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온라인 VBS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철 목사)는 유치부와 유초등부 대상으로 여는 온라인 VBS를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Treasured-Discovering You're Priceless to God'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문의: (469)323-0605

오렌지한인교회 사별가정을 위한 치유세미나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는 사별가정을 위한 치유세미나를 7월 11일(주일)부터 25일(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변병해 교수(아주사피픽 대학교).

▲문의: (949)507-1553, (714)871-8320

최선호 목사 별세

미주 한인기독교 문단의 큰 별 최선호가 목사가 지난 6월 15일 낮 별세했다. 향년 82세.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미주 기독교 문단을 지도해왔고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메시야교회 담임목회를 하다 은퇴한 최 목사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1987년 미국에 이민 왔다. 성균관대학교, 페이스신학교, 미주감신에서 수학하고 라이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크



리스천헤럴드 주필, 윌드미션대학교 교수, 미주 감신대교수를 역임했고 가산문학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도 받았다. 최 목사는 '바른말 고운말 연구', '땅의 실수, 하늘의 은혜', '시편 정해' 등 수많은 시집과 평론집을 펴내면서 왕성한 문학 활동을 펼쳐왔다. (정리: 박준호 기자)

조기옥 전도사 별세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전 직원이었던 조기옥 전도사(사진/조명철 목사 사모)가 지난 6월 1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4세. 1997년부터 뉴욕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LA로 이사하고 LA사무실로 옮겨 2017년까지 근무했다. 고 조기옥 전도사는 3개월 전부터 소화기 안 되고 복수에 물



이 차는 증세를 보여 병원 검사를 받는 중 지난 13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후후 별세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다. 저서로 '뉴욕에 핀 사랑 이야기'가 있다. (유원정 기자)



포스트 코로나시대 온오프라인 균형점 찾는다

미주복음방송 "AllLineChurch" 특집방송 진행

미주복음방송(AM 1190)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GBC 초대석 "All Line Church" 특집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신간 "올라인 교회"에서 다룬 주제들을 갖고 저자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담임)와 미주 지역 목회자들이 초대, 포스트 코로나시대 온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균형점을 찾고 배우는 올라인 사역의 의미와 사례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 김병삼 목사와 교역자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본 방송은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재방송은 해당 주일 오후 3시와 월요일 오전 8시 30분, 11시에 각각 방송된다.

각 주제에 따른 방송일시 및 대담자는 다음과 같다.

△7월 3일(토), 재방송 4일(일)&5일(월)-주제: '올라인 교회' 책소개-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를 위한 교회론적 실천 가이드, 대담자: 김병삼 목사(올라인교회 저자, 만나교회 담임) △7월 10일(토), 재방송 11일(일)&12일(월)-주제: 코

로나19가 가져온 교회변화-온라인예배, 설교, 목양&코로나 위기 실제 대응사례, 대담자: 김종규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 오명찬 목사(웨스트힐 장로교회), 박찬섭 목사(한길교회 담임), 안한 목사(인랜드교회 담임) △7월 17일(토), 재방송 18일(일)&19일(월)-주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사역별 대안-예배, 교회학교, 청년 사역 & 코로나 위기 실제 대응사례, 대담자: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 담임),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담임)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담임), 이정영 목사(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7월 24일(토), 재방송 25일(일)&26일(월)-주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사역별 대안-교구사역, 양육, 선교, 나눔&코로나 위기 실제 대응사례, 대담자: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담임), 이세영 목사(선한청지기교회 협동), 권도근 목사(나눔목 비전교회 담임).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신자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기도하는 법을 배워 자신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러야 한다. 넷째, 각 가정에 성경 이외에 몇 가지 신앙적으로 유의한 감동적인 책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섯째, 그들에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가르치라.

5. 병자들을 열심히 심방해야 한다.

우리는 열심히 병자들을 심방하여 그들이 결실 있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행복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야 한다. 작은 천사들의 일이란 그 영혼이 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빛나는 성도들의 기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한사람이 인생 여정을 거의 마치고 천국과 지옥이 갈림

길을 한걸음 앞에 두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남아 있는 한, 그를 열심히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환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건강할 때 열심히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한 자가 마지막에 구원 얻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그들의 기력과 정신이 다 쇠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속히 그들에게 달려가라. 둘째,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차근차근 가르칠 기회가 없으면 주된 핵심만 그들에게 일러주고 회심을 촉발시키는데 필수적인 진리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라. 셋째, 만약 그들이 회복되면 그들이 이룰 때 행한 약속과 결심을 분명히 상기시켜주라.

hyoangyoo2@yahoo.com



베데스다대학교 2021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과 교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74명 졸업생 중 15명 참석

베데스다대 2021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

베데스다대학교의 44회 졸업식이 6월 11일 오후 1시 본교 채플실에서 개최됐다.

베데스다대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계로 정식 졸업식을 하지 않고 Virtual Drive 방식으로 졸업식 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면 학교에서는 졸업장, 상장 및 졸업 선물을 전달하고 마련된 포토존(Photo Zone)에서 각 학과장들과 사진을 찍는 것으로 진행하려 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거의 진정돼 가고 남가주 지역 학교들도 정상적으로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서 약식으로나마 졸업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이러한 결정에는 별다른 의미 없이 졸업생들이 개별적으로 학교에 와서 졸업장 및 상장만 받아가는 것보다는 각 학과 교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졸업을 축하해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졸업생 수는 74명이었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관계로 많은 학생들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15명의 졸업생만 참석했다.

졸업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와 졸업식순으로 간략히 진행됐다.

(기사제공: 베데스다대학교)

OC 한국전기념비건립 기부자에 감사패

박경재 LA 총영사는 지난 10일 LA총영사관 5층 대회의실에서 오렌지카운티 한국전기념비건립위원회 노명수 회장과 한국전기념비 건립에 관심을 갖고 사업비 기금을 기부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증정식에서 송실대학교 남가주동문회 대표로 감사패를 받은 탁재동 회장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송실대학교의 설립 취지에 따라 기념비 사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LA협의회 양학봉 수석부회장, 배국희 대한인국민회재단이사장, 김태형 박사, Richard Gu Oxford Property Group 대표, Sam U. Lee 박사, Maxwell Oh, 조의원 선생, 윤익중 대령 등 1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강창진 예비역 임관화 대령 등 6.25참전용사들이 직접 기념비 사업에 동참하고 기부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창진 참전용사는 "6.25 당시 문산 전투에서 총알이 가슴을 관통하는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임관화 참전용사는 포로교환으로 가까스로 생환해 돌아온 일화를 소개해 참석자들을 숙

연계 했다.

박경재 총영사는 "한국은 6.25전쟁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도 뜻깊게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모두 새기는 기념비를 동부지역 워싱턴DC와 서부지역 오렌지카운티에 건립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명수 건립위원장, 배기호 부회장, 강석희 고문, 박동우 사무총장 등 건립위원회 관계자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미군장병들의 이름을 새기는 기념비 건립사업에 수많은 동포들께서 동참해줌으로 더욱 뜻깊은 사업이 되었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한국전기념비 건립사업은 지난해 8월 14일 착공식 개최 후 많은 관심을 갖고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 9.28 서울수복 기념 일을 계기로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문의: (714)514-6363 노명수 건립위원장, (714)858-0474 박동우 사무총장

(정리: 박준호 기자)

선교한국, 8월 온라인 선교대회

‘ON다’ 앞두고 내달 주제별 콘퍼런스 진행

선교한국은 오는 8월 온라인 선교대회 ‘ON다’를 앞두고 다음 달 14일부터 주제별 콘퍼런스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진행한다. 선교한국은 코로나19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데 착안해 올해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연

간행사 형식으로 ‘선교한국 2021 웰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콘퍼런스는 ‘ON다’ 대회의 준비 성격으로 열린다. ‘난민과 선교’ ‘이주민 선교’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선교’ 등 15개 선교 이슈를 선정해 이슈별 3개씩, 총 45개 주제로 강의한다. ‘ON다’ 대회는 8월 2일부터 5

일까지 콘퍼런스 내용을 토대로 열린다. 주제별 소그룹방을 만들면 해당 주제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나 전문가가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대회 마지막 날엔 온라인 박람회도 갖는다. 올해는 선교단체들이 소그룹방을 만들면 참석자들이 단체를 선택해서 소그룹방에 찾아가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다.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이상민(대전유성읍),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박성준(서울 중구 성동구), 박용진(서울 강북구), 박주민(서울 은평구), 송갑석(광주 서구), 윤영덕(광주 동구 남구), 이수진(서울 동작구), 이용빈(광주 광산구), 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진선미(서울 강동구), 홍익표(서울중구 성동구), 권인숙(비례), 김홍걸(비례), 양경숙(비례), 양이원영(비례), 유정주(비례), 윤미향(비례), 이동주(비례), 이수진(비례), 최강욱(비례), 최혜영(비례).

교계 반대에도 차별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23명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읍)이 결국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법률안 명칭에 ‘평등’을 명시했지만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7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같다.

24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은 진선미 남인순 윤미향 의원 등 2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지역구는 14명, 비례대표는 10명이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가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로 보기 때문에 동성애, 성전환,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차별로 낙인찍힐 수 있다.

게다가 입증책임의 전환, 소송지원 등 독소조항이 있어 표현 양식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체주의적 약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해외선교사에게 백신을” …한·미 교회 힘 모아

미주한인교회 등 ‘SMVP’ 프로젝트 1차로 50가정

코로나19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선교사에게 백신을 접종해 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해당 지역 선교사들이 백신 물량이 넉넉한 미국으로 건너가 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가 항공료와 현지 체류를 위한 숙소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 마련 등 협업에 나섰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강대홍 사무총장은 “한국과 미국교회가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선교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KWMA도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프로젝트명은 ‘세이프미션즈백신프로젝트(SMVP)’다.

SMVP는 미국과 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호소하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뜻을 모았다. KWMA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선

교사는 총 10명이다. 주로 의료 시설이 열악한 국가의 선교사들이다.

서울 생명찬교회(김동일 목사) 등 한국교회와 외산종양장로교회(류응렬 목사) 등 미주 한인교회는 물론 개인까지 21명이 기부금을 전달했다.

미국의 기부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서도 기금 모금에 나섰다. 개설한 지 열흘 만에 미국에서 2000달러, 캐나다에서 5630달러의 기부금이 오였다. 1차 목표 기부액은 13만 달러(약 1억4500만원)다.

지난달 26일엔 KWMA에 협업도 요청했다. KWMA는 프로젝트 소식을 선교사들에게 알리고 신청접수 등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대상이 되려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사역국가에 백신이 없고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했다.

이달 마지막 주 1차로 50가정

(12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7월과 8월에도 각 50가정씩 접종에 나선다.

프로젝트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백신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 지원이다. 현재 미국으로 가는 항공요금은 아프리카의 경우 평균 2000달러, 중남미는 1000달러 정도다. SMVP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선교사에게 절반인 1000달러와 500달러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절반은 선교사가 부담한다.

접종 대상 선교사들은 프로젝트팀이 있는 워싱턴DC 인근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 공항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자원봉사자를 만나 곧바로 백신 접종 장소로 이동한다.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백신은 다음 날 맞는다. 접종 백신은 안센과 화이자 두 종류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안센은 1주일만 격리 지침을 지키면 된다. 혈액과 관련한 질병이 있는 선교사는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 후 3주간 격리된 다음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된다.

프로젝트팀은 백신 접종 후 선교사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워싱턴 지역의 기도와 교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거 유입하기에 앞서 미리 복음의 발을 일구는 것이다.

교회는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담임목사가 직접 특별새벽기도회도 인도한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핑계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교회는 코로나19로 선교활동이 쉽지 않은 선교사 ‘심방’도 시작했다. 교회가 후원하는 11개국 30여명 선교사에게 위문품 상자를 보내고 있다. 상자는 김치찌개 등 한국음식과 건어물 과자 못가지 등을 담았다.

피그미족 문자 ‘키펴보’ 한글로 표기

작은손선교회 최관신 선교사 사복음서도 출판

아프리카 콩고에 소수민 피그미족이 있다. 아프리카 중앙 평원에서 살다가 유목민에게 쫓겨가 숲속에서 나무 열매와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이들이다. 성인이 신장이 보통 130-140cm에 불과하고 문자가 없다. 로마자를 쓰지만 95% 이상이 문맹자로 살아간다.

피그미족 선교단체인 작은손선교회(HFL)의 최관신(64) 선교사는 이들에게 피그미어(키펴보) 한글 표기 문자인 ‘키펴보정

청년들의 관심 주님게로 돌리자

유스 원크라이 조직위, 10월 다음세대 기도회 개최

다음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유스 원크라이(Youth One Cry)’가 오는 10월 열린다. 2017년부터 매년 1월 한달을 정해 12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왔던 ‘원크라이’의 청년 버전이다.

유스 원크라이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교파를 초월해 청년들이 한데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이형노 중앙감리교회 목사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돌파해 왔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다음세대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 이 기도의 불씨가 다음세대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목사를 비롯해 기도회 강사로 나설 송태근(삼일교회) 흥민기(라이프 하우스무브먼트) 조지훈(기쁨

이있는교회) 김상준(예수문화교회) 목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야말로 다음세대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때라고 말했다.

송 목사는 다음세대가 ‘다른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말하는 다른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신앙의 유산이 끊어진 세대를 뜻한다.

홍 목사 또한 “다음세대를 놓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말만 무성했을 뿐 그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다가가지 않은 것”이라며 “말이 아닌 삶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은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진심을 다해 다가간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목사는 현재 다음세대가 처한 현실을 되로 없는 절벽에 비유했다. 그는 “청년들은 녹록

지 않은 현실 속에 주식이거나 상회폐만이 탈출구라 여기고 있다”며 “세대 간 분리와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고립화돼 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이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런 이유에서 이번 제1회 유스 원크라이의 주제를 ‘우리의 꿈을 바꾸자(Let’s change our dream)’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많은 청년들이 주식이거나 인에 관심을 가진다. 기독교 청년이라고 다를 것 같진 않다”며 “이런 관심과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간담회 참석자 외에도 박동찬(일산광림교회) 황덕영(새중앙교회) 황성은(오메가교회) 목사와 김영석 배화여대 교목 등이 강사로 나선다”며 “유스 원크라이 기도운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영적 ‘빅 텐트(Big Tent)’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교연 등 교계 거센 반발…반대운동 예고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제정안 대표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평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자 교계와 기독교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23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교계의 반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터무니없다. 헌법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뿐”이라며 “당내에서 추동력, 당력, 가속력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대섭 목사)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신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소외·배제 없는 사회… ‘희년상생넷’ 창립

기독교 관련단체 200여곳 연대 공동 대응

기후위기,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독교 관련 단체 200여곳이 연대해 희년상생사회적경제네트워크(희년상생넷)를 창립했다.

희년상생넷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만 인हा대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희년상생넷은 구성원의 자주·자립·자치적 사회적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희년 정신을 구현해 소외와 배제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경에 따르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유대인 노예

가 해방되고 빛이 땅감했다.

임 위원장은 “2050년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될 위기에 처했고,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 불평등 심화 속에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10년간 차지하고 있다”며 “희년상생넷은 약탈 경제의 종식,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회복 및 자연과 더불어 삶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햇빛발전소협동조합, 공동체 통합 돌봄, 의료복지사 회적협동조합 등에 자원봉사자

가 해방되고 빛이 땅감했다. 임 위원장은 “2050년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될 위기에 처했고,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 불평등 심화 속에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10년간 차지하고 있다”며 “희년상생넷은 약탈 경제의 종식,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회복 및 자연과 더불어 삶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햇빛발전소협동조합, 공동체 통합 돌봄, 의료복지사 회적협동조합 등에 자원봉사자

앞서 교수 1912명이 모인 차별금지법제정반대전국교회성원합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법”이라며 “해당 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양규(한동대) 이삼현(연세대) 김동연(포항공과대) 이상현(송실대) 김윤태(백석대) 함성호(경북대) 유사라(대구대) 교수 등이 참석했

다.

유 교수가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평등법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녀의 개념을 허물어 가정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란 개념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줘 차세대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두 법안은 걸로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젠더이데올로기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등 결국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심과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안이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가 2030년까지 100만명 참여하는 ‘한국형 디아코니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복 아시아태평양생명학 연구원장은 “현재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경제적, 생태적 위기를 맞았다”며 “한반도에서 희년을 새롭게 선포하는 건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해방선언이며 희생적인 사람으로 이웃 돌봄의 길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희년상생넷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 원장과 이일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가 고문으로 위촉됐다. 강정철 부산연탄은행 목사, 고선미 전주의료사협 상임이사 등이 이사로 일한다.

정도였다. 그러다 2010년 아프리카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 따라 갔다가 피그미족을 만났다.

이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그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자 “예수를 당신들이 죽여 놓고 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냐”는 반응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2013년 피그미족 대(ABSW)에서 목회학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복음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최 선교사는 당시 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였던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키펴보의 한글 표기체계를 완성했다. 서울 양화진 모역에서 한글 성경 번역과정을 보고 키펴보 성경번역에 들어갔다.

선교의 창 (17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21세기 대학선교에 대한 진단

대학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잠재력이 가장 큰 못자리판이다. 그곳에는 젊고 기동성 있으며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있다. 저들 대학청년들의 복음화는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세계선교에 대한 희망이 됨을 알 수 있다. 선교역사에서 찬란했던 그 사례는 18세기 독일의 할레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19세기 초 미국 윌리엄스 대학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런 점에서 대학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한데 지금 우리 곁의 대학에 대한 선교 실패는 어떠한가? 대학촌에 활화산 같은 복음의 역사가 분출하고 있는가? 영적, 물질, 인적 자원이 열악한 몇몇 선교단체로서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선교단체들은 저들을 수용할만한 인프라가 없다. 이러한 때에 과연 교회들을 대학선교에 마음이 있는 것인가? 혹시 무관심, 무대책, 무능력이란 3무(無)속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략적으로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사역을 놓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역사의식은 문제의식과 해결의식이다. 통절(痛切)한 심정으로

로 우리 교회들이 이 사역에 눈뜨기를 기도 한다.

1. 대학의 문화 환경

지금의 대학생들은 의식구조나 생활문화가 기성세대와

는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색할 여유가 없다. 클래식한 음악을 들으며 고전을 읽을 시간도 없다. 그들은 대개 도시문화 속에서 자랐으며 부모세대의 고생을 모른다. 그들은 개인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적인 대중문화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 특히 IT문화의 발달로 정보력이나 계산 등 지식능력(IQ)은 높으나 감성지수(EQ)가 뒤떨어진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영상

문화에 깊이 젖어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치열한 사회 경쟁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닌다.

그들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한다. 학과공부, 축제나 서클활동, 장래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교회봉사, 이성교제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자일 경우 군대도 가야 한다. 바쁜 경쟁구조 속에서 대학생들은 1인 다역을 하고 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제한된 에너지 분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2. 기독 대학인의 실태

오늘날 몇 개의 알려진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면 몇%가 남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교포 2세대 경우에는 7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 그들이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진다. 이들은 신앙의 굴곡이 없이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며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 등 주무 봉사 위주 활동을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배움이나 훈련의 기회가 적다.

반면에 선교단체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열심이 있되 신앙적 굴곡이 크다. 이들은 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공동체적 활동으로 인하여 신앙적 뜨거움이 있다. 그러나 영성공동체의 중복으로 인하여 마음분산, 시간분산, 재정분산이 되어 갈등하는 예가 다반사다.

인간은 제한적이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다. 장차 사회에 나가 실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존음을 아껴 학습해야 할 시기에 여기 저기 모임과 외면적 활동 위주로 살다 보면 자칫 학생으로서 자기 본분을 놓치기 쉽다. 그러므로 교회나 선교단체는 대학청년들을 근시안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먼 내일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 따라 은사를 개발하며 충성되고 실력 있는 인물들로 자라갈 수

의 회심이나 양육과 동시에 대학문 및 사회구조의 변혁을 위한 통전적인 선교신학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는 사이버 시대 혹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한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반도체 칩(chip), 카드(card), 케이블(cable), 코드(code) 속에서 사이버(cyber)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주도함으로써 기존질서와 세계로부터의 변화(change)를 추구하는 “사이보그(cyborg)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에서 그 존재양식이 이미지(image)이고 존재하는 시공간은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며 존재하는 방식은 네트워크(network)이다.

셋째는 대학선교에 대한 열정과 많은 노후를 지닌 대학생 선교단체들과 인적, 물질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 교회를 묶는 협력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학선교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들은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서

버드(Harvard) 대학 도서관에는 30가지 명언이 붙어 있다. 그 중 첫째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Sleep now, you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 대학청년들은 이 사회로 나오기 전 마지막 관문이 대학이다. 저들은 저마다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년 수가 더할수록 그 꿈들은 작아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현실이란 절벽 앞에 서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대학생들은 실패는 매우 심각하다. “벼랑 끝의 대학생들, 그들에겐 봄은 없다, 청년백수 탈출기, 상처 입은 세대”라는 통용되는 말이 척박한 삶의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떠한가? 그래도 여유가 있으나 대부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맞추어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저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한 케임브리지 7인(Cambridge Seven)”이나 건초더미 기도회를 주도한 사무엘 밀즈(Samuel J. Mills, Jr) 같은 헌신자가 있는가? 절대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치고 올라가는 오늘의 대학문화를 방관하면서 우리 교회는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대학가를 적시지 않는 한 세상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학선교의 장벽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이는 90년대를 지나면서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21세기 코로나시대인 지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둠의 세력이 진지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대학캠퍼스를 녹여야 한다. 나아가 지역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되 교회성장이나 기관의 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적 시각으로 대학 영혼들을 입양할 필요가 있다. 모이는 교회보다 열방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연합하면서!

jsong007@hanmail.net

맺는 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다. 대학은 세계선교를 위한 잠재력이 가장 큰 못자리판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미전도종족에 해당된다.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3. 대학선교의 과제

첫째는 통전적인 선교신학이 필요하다. 회심을 통한 영혼 구원과 교회개혁에 집중된 전통적 선교방식은 개인주의적 신앙관과 제국주의적 선교로 귀착되기 쉽다. 그런 선교전략으로는 오늘날 대학을 지배하는 세속주의 문화와 계몽주의 세계관을 극복할 수 없다. 대학선교는 복음전도를 통한 개인

로 연합해야 한다.

넷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채플이나 다양한 신앙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비전 트립(vision trip)이나 단기선교훈련을 통해 선교지와 연결하며 그들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을 통해 전문인 선교(Tent making)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⑥ 숨겨진 혹은 잃어버린 세월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열성 유대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청년 바울은 예수 추종자들이 자신이 신봉하던 유대교를 훼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했고, 다메섹에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청년 바울은 예수 믿는 무리를 훼손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잠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십수 년을 아라비아 사막과 다소에서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1:17-18에서 바울은 회심 후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삼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설명합니다. 더글라스 레드포드는 바울의 회심은 AD 34년이고 그가 아라비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방문한 때는 AD 37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

에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 후 약 10년 다소에서 머뭙니다.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세월을 바울의 숨겨진 세월(Hidden Time) 혹은 잃은 시간(Missing Time)이라고 합니다.

회심 후 바울의 첫 번째 예

는 데 대부분의 신약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13년 동안 바울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이 기간에 대한 입장도 약간 다릅니다. F. F. 브루스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약3년을 보내고(갈1:17), 예루살렘을 거쳐 고

루살렘 방문을 사도행전 9:26-30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심받고 살해위협까지 받고 급히 피신합니다. 사도행전 9:30은 “형제들이...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AD 46년,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교회 동사 목사로 갈 때까지(행11:25) 아라비아 사막과 다소(행22:3)에 머물렀다

향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보냈던 기간을 11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반면에 폴 테너(Paul Tanner) 박사는 바울의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6년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년과 10년, 1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바울은 “담대하게(παρρησια)”(행9:27, 29) 간증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충만한 복음전과 장면을 설명할 때

“담대히”(4:19, 4:29, 4:31, 13:46, 14:3, 18:26, 19:8)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13:46), 이고니온(14:3), 고린도(18:26), 그리고 에베소(19:8)에서 담대히 복

습은 확신에 차 있었고, 바울의 신학은 더 세련되고 성숙해졌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아라비아 사막’은 당시 나바테아 왕국이 지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32에서 다메섹에서 ‘아레다(Aretas)’ 왕의 고관인 자신을 잡으려 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아레다 왕’이 나바테아 왕국 ‘아레타스 4세’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북동부에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시리아의 다메섹 지역을 포함하는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주후 105년 로마의 트라야누스황제가 나바테아 왕국을 로마제국에 편입시키기까지 나바테아는 로마의 인접왕국으로 건재했습니다.

바울의 숨은 시간(hidden

time)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 함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행적에 대해 대략 4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입장은 바울은 이곳에서 갈라디아서 등에서 드러난 ‘이신칭의’ 교리를 정교화 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입장은 바울이 이 기간 중에 아라비아에 교회를 개척했고, 다소에서 사역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입장은 바울이 장래 선교활동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넷째는 바울이 이 기간 대부분을 실제로는 다메섹 전도에 매진했고 아라비아와 다소에는 단지 잠시 내려갔다는 견해입니다. 바울의 숨은 기간에 대한 성경 본문들과 또 이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다소와 아라비아에서 선교활동을 준비하며 자기 신학을 정교화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단순히 중세수도사들처럼 기도와 묵상에 매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회심 직후 다메섹에서 즉시 전파했습니다(행9:20). 3년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 전파한 모습(행9:29)도 매우 활발하여 수도원적 태도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다듬고 신학적 성숙을 꾀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부터 바나바로 부터 안디옥교회 동사목사로 부름을 받기까지 그는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바울은 회심과 더불어 부여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장차 자신의 선교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의 숨겨진 세월은 그의 사역과 삶의 성숙을 주고, 구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정립하는 숙성을 허락하는 축복된 세월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chap1207@hotmail.com

회심 후 아라비아사막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행적 없어 선교활동 준비하며 신학을 정교화 하는 축복된 세월 추정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누가복음의 특성(눅1:1-4)찬404장

“인자”의 복음으로 알려진 누가복음은 어떤 특성을 가졌습니까?
첫째, 확실한 증인의 증거입니다.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기록을 남겼지만 성령은 복음증거자인 의사 누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둘째, 연대기적 순서를 따랐습니다. 의사의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적으

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이 연대기가 다른 복음서를 바로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 더 확신을 주기 위하여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속이 완성됨을 알고 대속물로서의 참사람이신 그 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 안에 심겨진 신성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요한출생의 섭리(눅1:5-7)찬184장

오래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의 출생에서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첫째, 제사장 집안에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5). 대대로 성전을 거룩으로 섬겨온 레위가 문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세속화돼 타락한 대제사장 가문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은밀하게 섬기는 사가라 경건한 가정은 구속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습

니다. 둘째, 의인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호와 경외신앙을 가진 그 가정은 구속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일꾼이 나옵니다. 셋째, 섭리적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7). 불임상태에서 요한의 출생은 고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난관속에서도 구속의 은혜를 누리실 성도가 됩시다.

수 사가라가 받은 계시(눅1:8-14)찬177장

요한의 임대를 둘러싸고 주어진 사가라가 받은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구약의 규례를 신실하게 따른 자에게 임한 계시입니다(8-10). 구약의 제사규례를 통한 신약의 구속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천사를 만남으로 받은 계시입니다(11-12). 제사 드리는 중 천사를 목격함으로 하나님

의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셋째, 그의 메시지는 요한의 기적적 출생과 사람들의 기뻐함을 예고했습니다(13-17).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출생할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명령과 그로인해 사람들이 기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기이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은혜를 누립니다.

목 세례요한의 장래계시(눅1:15-17)찬427장

계속 사가라가 받은 계시 속에 요한의 장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됩니다(15).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 그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됨을 말합니다. 둘째,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16). 경건으로 무장하여 경건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 곧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완

성하는 큰 선지자로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엘리사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17). 죄에 대한 회개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길잡이로서 사역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재림 주님의 길잡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금 사가라의 불신앙(눅1:18-20)찬182장

불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사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그릇이 없었습니다(18). 정작 기도가 응답되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불신앙의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징계를 통해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19). 그러나 하나님은 일시적인 징계를 통해 믿음의 확증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복입니다. 셋째, 징계의 증표가 나타났습니다(20). 그의 징계가 말 못하는 병어리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더욱 믿음의 중요성을 배우게 했습니다. 참 믿음으로 주를 섬깁시다.

토 엘리사벳의 신앙(눅1:21-25)찬482장

납편은 징계를 받았으나 그녀는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음을 25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이때가 주께서 돌아보신 날이셨음을 찬양했습니다(25). 모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마7:7-9). 둘째, 주께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25).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되

어 간증거리가 생겨 찬양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같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열납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의 임태가 기도 응답으로 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25). 그는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응답 됨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 신앙의 본을 따릅시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8)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1)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찬 예배 공동체 초기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 중심이 된 말씀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례전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었던 예배공동체였음이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행2:46-47) 이외에 다른 문서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 1933-2007) 교수는 “이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너무나 큰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배에 관해 기록하는 것을 피했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듀크 대학의 예배역사학자 레스터 루스(Lester Roth) 교수는 웨드미션대학교 ‘현대 예배와 찬양’ 특강에서 초기 2-5세기 기독교 교인들의 예배를 연구하며 그들이 예배에서 3가지 중점을 두었다고 정의한다.
그들은 경배를 우선으로 하였다(Priority of Praise) 두 번째는 본질적인 것들에 반응하여 그 흐름을 예배순서로 삼았다(Order of Worship as Flow of Essential Actions) 그리고 그들은 역동적인 참여를 하였다(Dynamic Participation of the People). 이 같은 요소들은 초기기독교 교



윤임상 교수
(웨드미션대학교대학원)

선들로 교회를 차갑게 하고 멍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다.
한신대학교 오승성 교수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묘사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외적으로는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종교적 배타주의와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제약적이고 비윤리적인 목회, 불투명한 회계, 교회 세습 등과 더불어 교회의 심각한 노령화로 인해 교회가 존폐기계에 놓여 있다. 분명 한국교회는 그 누가 보아도 위기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두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예배공동체로 회복돼야 하나님의 기쁨(주권)과 복음 향한(관점)의 문제 점검

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깊이 경외하고 흠모하였던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연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기독교가 250여년(64-313) 가까운 로마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의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말살되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세대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체험 신앙은 2세대, 3세대로 전환되기까지 그 뜨거움으로 연결되었다.
그들은 구약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전과 회당의 예배 예전(Liturgy)의 전통을 잘 전수하여 본질을 회파 시키지 않으려 노력했고 모든 예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삶에서의 예배를 실천하였다. 그 핵심은 바로 그들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부활 신앙에 기초를 두었고 예수께서 승천하심,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행1:11)을 기억하고 그것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예배자들이 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오늘을 지내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실로 대단하다.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점점 더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파가운 시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예배자들의 예배관이다. 오늘날 예배는 초기 기독교에서 가졌던 복음이 중심이 된 예배에서 많이 벗어나려 한다. 기복 신앙에 기인된 개인주의, 그것으로 인해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 사상이 팽배하고, 삶의 윤리가 강조된 가르침이 주된 이유가 되어 정작 매 순간 기억되어야 할 복음적 예배의 진리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 시대 교회 예배공동체를 바라보며 필자는 에이든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1963) 목사가 쓴 예배론의 한 부분을 서술한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예배를 가리켜 나는 ‘가인의 예배’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고 정죄하셨기 때문이다. 가인의 예배는 속죄가 빠진 예배였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정성껏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속죄의 예배를 드렸다(히9:22). 이 전통을 이어받아 초대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인한 속죄가 있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예배공동체였다.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0)

3. 장애인 사역자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옳은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하고 모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급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후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어렵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도전을 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름

받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이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다 처음부터 다 알았더라면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다 알 수 없었지만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걸어놓고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장애인 사역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사역을 맡겨야 한다.

4. 장애인 사역은 사역자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아픈 상처에서 긍정적인 열매를 찾



았다(고후1:6). 장애인 사역자는 자신의 약점과 상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약함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약함이 있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더 위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사역에는 장애를 가진 사역자가 많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였다.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고후12:9).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집짓기에 대비한 건축가의 신앙 (2)

2. FACTS-Collect and Analyze Facts

What is it all about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사탄의 그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운데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서 계속 죄 가운데 있으므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BC 2050년경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와 그의 식구 모두 8명을 남겨 두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8 식구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였지만 또 다시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비기고져 하여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항하므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므로 그들이 헤어지기 시작하여 부족마다 언어가 다른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본처의 아들인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두 아들 중 야곱을 택하시며 야곱의 4명의 부인으로부터 열하나의 아들로 12지파를 만드십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 세상이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동안 식량이 풍부한 애굽의 바로 왕은 꿈을 해석한 지혜로운 요셉을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식량을 얻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었는데 뜻밖에 요셉을 만나 식량도 얻고 야곱의 70여 식구들이 애굽에서 편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애굽의 왕이 바르다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400년을 고생하던 중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세우시고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에서 탈출(Exodus)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를 지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40년을 지나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았습니다.

그 후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로 사울왕을 지나 다윗왕국을 통하여 이스라엘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 속죄제를 지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므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지내시므로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3. CONCEPTS-Uncover Test Concepts

How does the client(The God) want to achieve the Goal

예수님께서는 오는 세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함을 아시고 새 언약을 백성들의 마음에 넣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시작되었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donho5538@gmail.com

독/자/투/고
호기돈 장로 (은퇴 건축가)

하여 사람들에게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쓰게 하시고 보전케 하시면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시어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죄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며칠 후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홀연히 불의 혀 같이 갈라진 것이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모두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므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는 세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함을 아시고 새 언약을 백성들의 마음에 넣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시작되었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donho5538@gmail.com

신자는 약하나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가장 강한 능력이 된다.

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믿음은 수동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희망찬 의지다.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새로운 일을 허용하며, 아직 들은 적 없는 가능성에서 파생하는 일을 책임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냉소가 아니라 능동적 기대로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다. 의심은 말가지 못한다. 시커스에서 곡예사가 다른 곡예사의 손에 온 몸을 맡기고 자신의 그네에서 뛰어 내리는 것과 같다. 만약 약의 의심이 있다면 자신의 그네에서 뛰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말기에서 시작한다.

신약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말긴다’는 뜻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깊은 확신이다. 믿음은 친밀하고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 “주님의 강하신 사랑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하는 고백이다. 말기는 것은 다 알아서 말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말기는

아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조국 화란과 가족과 친구들을 다 떠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때죠.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외로움이나 이별의 경험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남들의 외로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외로움을 타도 거기서 달아나지만 앓는다면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날아나지 말자, 늘 외로움을 느끼는 그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살면 그것이 언젠가 희망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숨겨진 선물이 있을 것이다. 내 외로운 삶을 통해 점점 그 사실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삶의 선물은 흔히 아픈 상처의 자리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첫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인으로 둘째, 주님을 의지하여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

“현대인이 처한 어려움을 규명하려는 온갖 시도 끝에, 나는 사역자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의 부름은 자신의 시대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사역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선교 사역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이다. 의지하는 것은 강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한다. 신자는 약한 자이다. 세상에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신자는 약하나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가장 강한 능력이 된다.

miju92@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장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종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잊혀진 그리스도의 승천 교리 회복한다!

TGC, 패트릭 슈나이더가 설명하는 승천 교리의 중요성과 회복돼야 할 이유 보도

승천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종종 잊혀지는 사건이다. 교회가 워낙 십자가와 부활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이다. 주로 논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고 또 부활이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한 지 등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승천 문제는 항상 뒷전에 밀리기 마련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잊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더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다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승천에 대한 건강한 강조는 다른 교리를 더 강화시킨다. 예수님과

관련한 사건들이 구분될 수는 있지만 결코 분리될 수는 없으며,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패트릭 슈나이더(Patrick Schreiner, 미드웨스턴침례교신학교 신약학) 교수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다른 교리들과 연관시킴으로, 다른 교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한 교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강조가 파괴하는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Recovering the Forgotten Doctrine of Christ's Ascension).

승천과 성육신

승천은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다. 그러면 이런 승천을 어떻게 성육신과 연결할 수 있을까? 몸을 입은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는 대신,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룬 사역을 다시 돌아 보도록 한다. 성육신은 어쩔 수 없이 잠시 거쳐야만 하는 덜 중요한 단계가 아니다. 승천을 통해 성육신의 목적은 충족됐고 또한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육신을 구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다. 그렇기에 일시적, 물질적, 그리고 물리적 차원은 승천에서 거부되지 않고 오히려 확증된다. 메시아의 승천을 통해서 육체가 하나님이 계신 영적 영역으로 올라가 인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임을 보여준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유지함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더 높은 차원으로 높였다.

그렇기에 승천은 성육신을 보증한다.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연결된다는 것일까? 처음에는 내려왔고, 다음에는 올라갔다. 그러면 승천은 성육신을 뒤집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 땅에 내려오심과 하늘로 올라가심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 둘은 하나의 움직임으로까지 간주된다(참조, 예4:9-10; 빌2:5-11).

예수님은 승천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두 가지 행동은 서로를 상쇄하지 않는다. 대신 타락으로 인해 부서진 것을 회복시킨다.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은 두 가지 움직임이다. 예수님은 처음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다음으로 그는 육신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인류 속으로 모셔오기 위해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는 인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올라가셨다.

승천과 십자가

혹자는 예수님의 왕권과 승천에 집중하게 되면 십자가를 경시하게 되는 울무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승천이 그리스도의 높임과 관련이 깊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겪은 수모를 소홀히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굴욕과 높임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함으로 결코 두 갈래로 나뉘질 수 없는 문제다.

성경에 따르면 굴욕과 높임은 같이 온다. 승천과 십자가는 긴밀하게 연결돼있다.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은 그 둘 모두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이 적지 않지만 나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한다.

승천(그리고 부활)은 십자가의 진리를 드러낸다. 승천 전까지 십자가의 실체는 사실상 가

려져 있었다. 그러나 승천으로 인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처럼 현대 기독교인도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의 존재 자체도 덮였다. 십자가는 실로 그들이 만난 최악의 비극이었다.

성경 저자들이 나중에 십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십자가에 대한 모든 기록은 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쓰였다. 그렇기에 성경 저자들은 처음으로 십자가를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와 다르게 십자가에 대해서 서술한다. 두려움, 애통, 혼란의 감정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혔을 때 당시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다. 예수님이 범죄자가 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둠은 단지 하늘만 덮은 게 아니라 그들

를 복음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된 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역할이 분명해진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굴욕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었다. 굴욕과 높임은 함께 오지만 그 높임은 별도로 수여돼야만 한다. 승천은 결코 십자가와 예수님의 높이심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

은 영원히 굴욕당한 존재에서 높임을 받은 존재가 된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끈다.

따라서 메시아의 높이심은 십자가의 본질을 드러내고 확장한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눈에는 굴욕으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굴욕을 승리로 만든 것이고, 신약성경의 대부분 내용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주제다. 승천은 그리스도가 달린 영광스런 십자가 위를 덮고 있던 천을 벗겨버렸다. 승천은 바로 스스로를 선언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승천과 부활

승천과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교리가 부활이다. 성경 저자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바로 높이심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기에 부활과 승천을 높이심이라는 주제 아래 그냥 하나로 묶기도 한다(행5:31-31 참조). 부활과 승천은 서로 속해있는데, 승천은 단지 부활의 자연스런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두 개는 구분돼야 한다.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요20:17). 승천은 단지 그리스도가 부활한 삶의 자동 연장이 아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이뤄지는데, 다른 아닌 그가 거하는 장소가 높임을 받은 그의 삶을 확인한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반면, 승천은 높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육신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고,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높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단지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 재림할 것을 믿는다.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없었던 탁월한

영예를 얻었다. 부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아들 되심을 보장한다면, 승천은 그가 주님 되심을 드러낸다.

비록 부활과 승천이 같은 맥락 속에 있지만 이 둘은 분리돼야 한다. 부활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했다면, 승천은 그 입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승천은 단지 부활 이후에 따라오는 부록 같은 것이 아니다. 승천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승천과 종말론

마지막으로 승천은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그 가치를 더 드높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도록 만든다. 승천은 클라이맥스도 이야기의 끝도 아니다. 승천은 다가오는 마지막의 시작이다.

지금 이 시대는 끝에 다다르고 있다. 메시아의 승천이 꼭 필요하지만 그 승천 또한 임시적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을 단지 다가오는 것으로만 보는 대신에 이미 시작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예수님의 주권은 현재로는 하늘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그가 재림하면 그는 그 주권을 온 세상 모두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낼 것이다.

교회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계22:20)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높이심에 대한 믿음도 고백한다.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간청한다. 승천은 승천이 아니라 승천을 기다리는 것이다. 승천을 기다리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통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 사이의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가 일을 끝내기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가 계속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도록 만든다. 재림은 우리가 현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지금도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 감사하게 만든다. 그의 재림을 갈망한다.

... 교회와 예배음악

(14면에서 계속)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예배를 통해 기념하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그것을 고대하고 찬양하며 서로 나누며 통용했던 사랑의 공동체였다(행2:43-47).

오늘날의 교회는 비록 초대교회와는 다른 시대와 문화를 갖고 있지만 변질되지 않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을 가르치는 참된 교회인 것이다.

토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서술한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단 한 시간도 머물

고 싶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가인의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보혈이 중심이 된 복음적인 예배를 가르치는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깊이 점검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와 관점의 문제이다. 단순히 복

음을 전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에 있어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 코비드 펜데믹이 교회에 주고 간,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인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여기저기서 아직도 호소하고 있

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에 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메가폰 소리로 들어야 한다.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쫓는다"라고 정의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예배 공동체인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

진실의 깃대를 대고 오늘의 예배에 돌아보며 더 이상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드리고 메가폰 소리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머리와 가슴으로 받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고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닌 복음을 향한 예배가 되는 이 진실의 깃발을 쫓아야 한다.

iyoon@wmu.edu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코로나19 시대, 예배의 정수(精髓)!

국민일보

그 많던 예배사는 어디로 갔을까

저자 김성국 목사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한국 판매처: 국민일보 02-781-9870
미주 판매처: 미주크리스천신문사 (1)718-886-4400 www.hisfingermall.com

Hisfinger

편집 디자인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 히즈핑거